2014년 통권 제21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1. 2014.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일지춘실(一枝春室)에서

설 정 환

일지춘실[1]에서는
장지(壯紙) 앞이 아니라
장지 뒤에 웅크린 채
하룻밤 붉은 꽃 석 점을
피우기에도 버거운
손 시린 돌부처가 산다

뒤에서 툭, 붉은 점을 찍자
앞에서 툭, 붉은 꽃이 핀다

하늘로 뻗은 묵은 가지에
홍매가 그렇게 소리 없이 핀다

동쪽으로 난 창문밖 함박눈조차
그의 붉은 꽃잎을 덮지 않는다

매화나무 한 그루에
붉은 꽃이 피는 동안
세상의 소란함도 닫아 둔 채
우이모필(牛耳毛筆)이 닳고 있다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겨울밤만이 하얗게 깊어진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98-16번지에 위치한 동양화가 목운 오견규의 작업실 이름



설 정 환

1970년 전북 순창 출생.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4년 《함께 가는 문학》신인상, 2010년 《시와사람》 신인상 수상으로 작품 활동. 시집 『나 걸어가고 있다』, 포토에세이 『파리, 날다』가 있으며, 엮은 책으로 『아이와 함께 웃는 교사,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가 있다. 현재 천연수자원보호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미래센터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표지작가안내



소년 **가변설치** / 화선지에 수묵 2014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2014 회귀-소년,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외 10회
- 그룹전 80여회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전북 회화

전북회화

이천십사년 12월

제21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론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송현성)
2013. 12. 10~15	정기전(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모임(신입회원-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초대전(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08 김 원
09 박성수
10 박지예
11 방정엽
12 송태정
13 송현성
14 안순금
15 엄기석
16 이광원
17 이동형
18 이봉금
19 이명자
20 이승훈
21 이우정
22 이진숙
23 이철규
24 이철량
25 이환배
26 정미현
27 최윤진

수필

28 **늙어 외롭지 않으려거든** | 김경희
30 **주검에게 영원한 생명을** | 김영숙

미술관을 찾아서

32 **EUNIQUE전을 참가하고** | 이철규
36 **열정시대-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 송태정

회화이론

40 **아트페어의 허와 실** | 이철량

전시후기

44 **전북청년작가 초대전** | 최윤진

자유기고가

48 **양성모 작품을 보고** | 이철규

레지던시 참여기

52 **경기창작센터에서의 하루** | 박성수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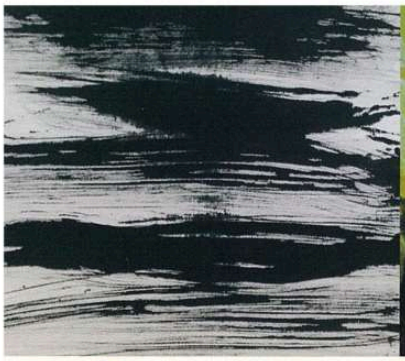
56 **군산을 찾아서** | 이승훈
62 **딸과 함께한 띵따오 여행** | 이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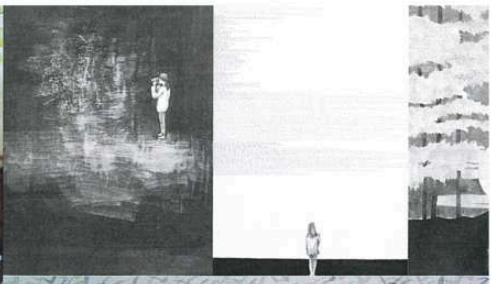
여적

66 · 67 **읽을만한 책 / 회원주소** | 편집부
68 **편집후기**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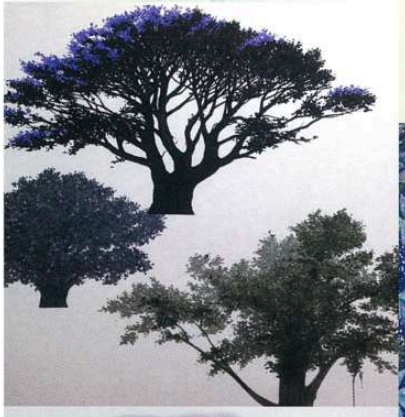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1. 2014.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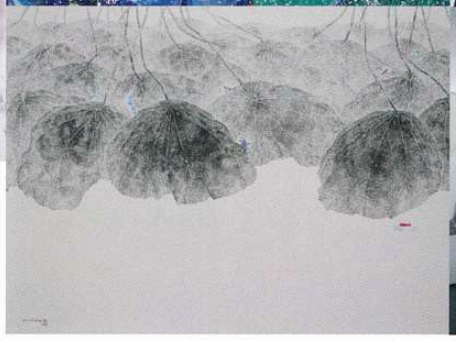












2014 전북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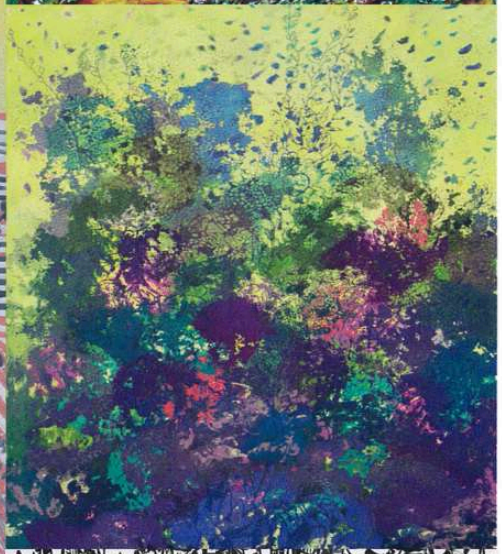
2014. 8.13(수)~8.19(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Jeonbuk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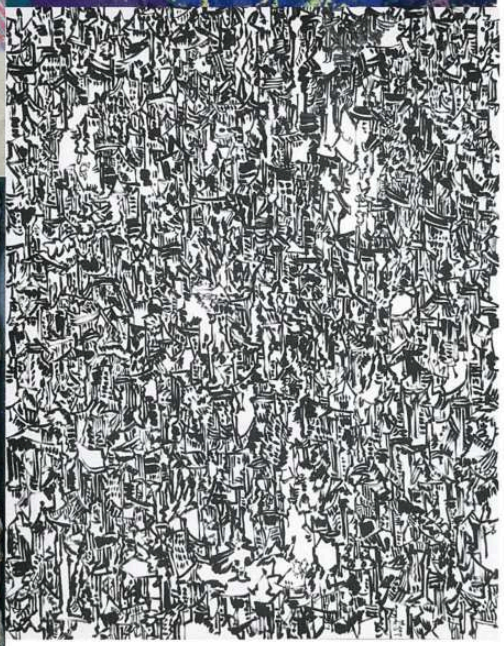
박성수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송현성 안순금 엄기석 이광원 이동형 이명자 이봉금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철량 정미현 최윤진















밥 / 26x37cm / digital painting 2014

밥 먹고 살기 힘들다이

하루, 한 달 열심히 살아도 시간은 항상 나를 앞질러 간당게

그래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든개벼

김 원 (kim, won)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개인전 _ 2012 육지의 섬 (서신갤러리, 전주), 2010 repose (문화공간 싹, 전주)
• 現) 전북민미협, 전북회화회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31-18 성원오피스텔 913호 • 전화 : 010-2026-8207 • E-mail : orientar@naver.com



소년 가변설치 / 화선지에 수묵 2014

하루의 일을 나무와 화선지를 통해 구성해 보았다.

우리가보는 나무와 새, 하늘, 사람들을 풍경처럼 화선지 작업으로 나열해 보았다.

화선지만이 가지고 있는 빛의 투영성을 적극 이용하여

하루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하고자 했다.

.....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2014 회귀-소년,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외 10회 • 그룹전 80여회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공간과 여인 / 70x123cm / 종이에 수묵채색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 지는 가시적 실제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활력을 통해 내면세계를 체득하는 통로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편으로 "작가는 그림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치유하고 보살피고자 하는 것"이라고 미술평론가 박영택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림 그리는 작업은 단순히 한 작가의 인적 기호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어떤 세계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작업의 내용은 부족하나마 이러한 인식을 담아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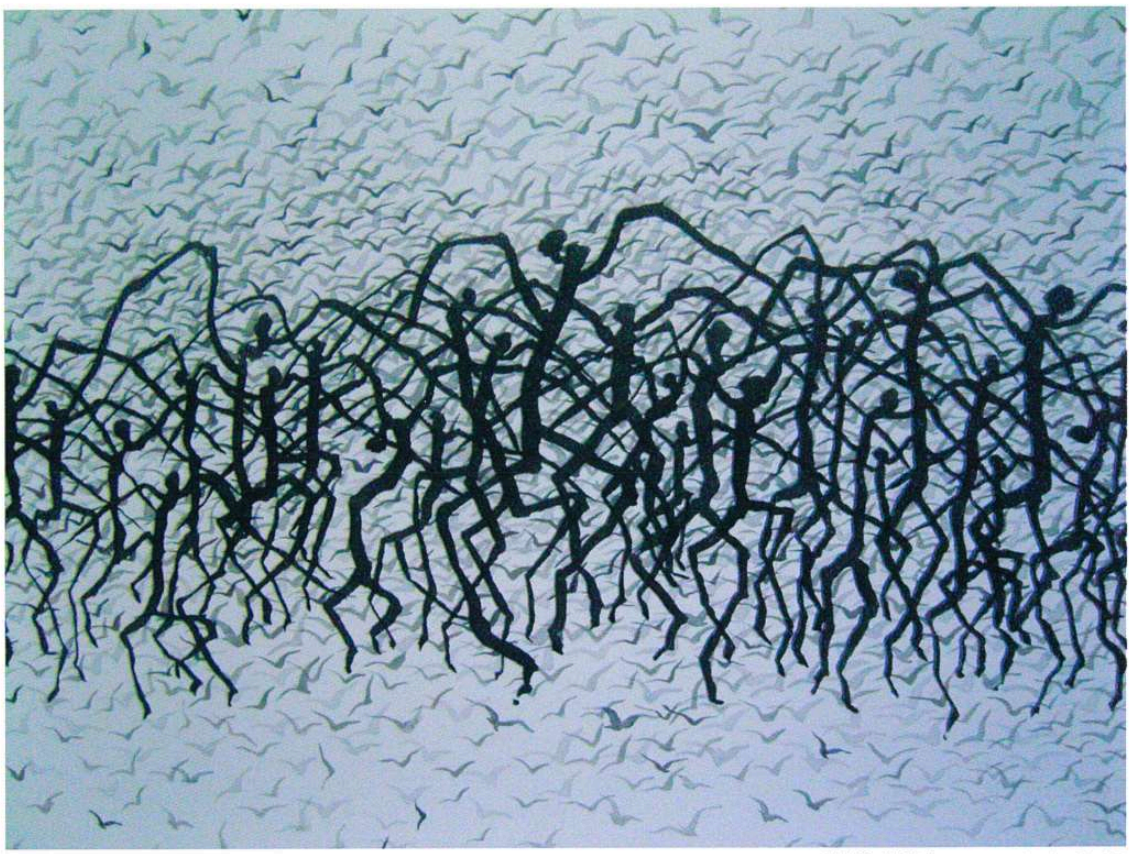
그동안 본인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왔다. 그간의 작업도 주로 다양한 사람의 표정과 삶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었다. 오랫동안 보아오고 경험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제 중년에 들어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직도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중년의 나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부모로서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공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합적이다. 또한 이런저런 소소한 만남과 헤어짐의 관계들은 내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그림의 소재들이었다. 중년여성으로서의 삶과 사랑은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내 주변의 뭇 여성들이 공유하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그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괴로움이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 나이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갈등이 있다.

이처럼 그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어떤 세계와 주변 환경과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졌다. 때로는 갈등과 화합으로 그녀의 삶은 엮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삶의 장면들이 어느새 내 그림 속에 들어와 있었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생 중반의 나이, 이의 내면을 바라보고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졸 • 전북대 박사과정 • 現) 전북대학교 겸임 교수 • 개인전 : 2013 제1회 DIAS국제아트페어, 2013 서울아트쇼 (코엑스), 2014 art karlsruhe(독일 칼슈르에무역센터,갤러리), 2014 아트쇼 부산2014(벡스코 ,갤러리) • 단체전 : 시대정신과 동양회화의 표현의식(한원미술관), 최북미술관 기증작작전(최북미술관) 외 다수 • 활동 (원묵회, 전북회화회, 인물작가회, 동질성,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전화 : 010-2658-7822, (집) 063-228-7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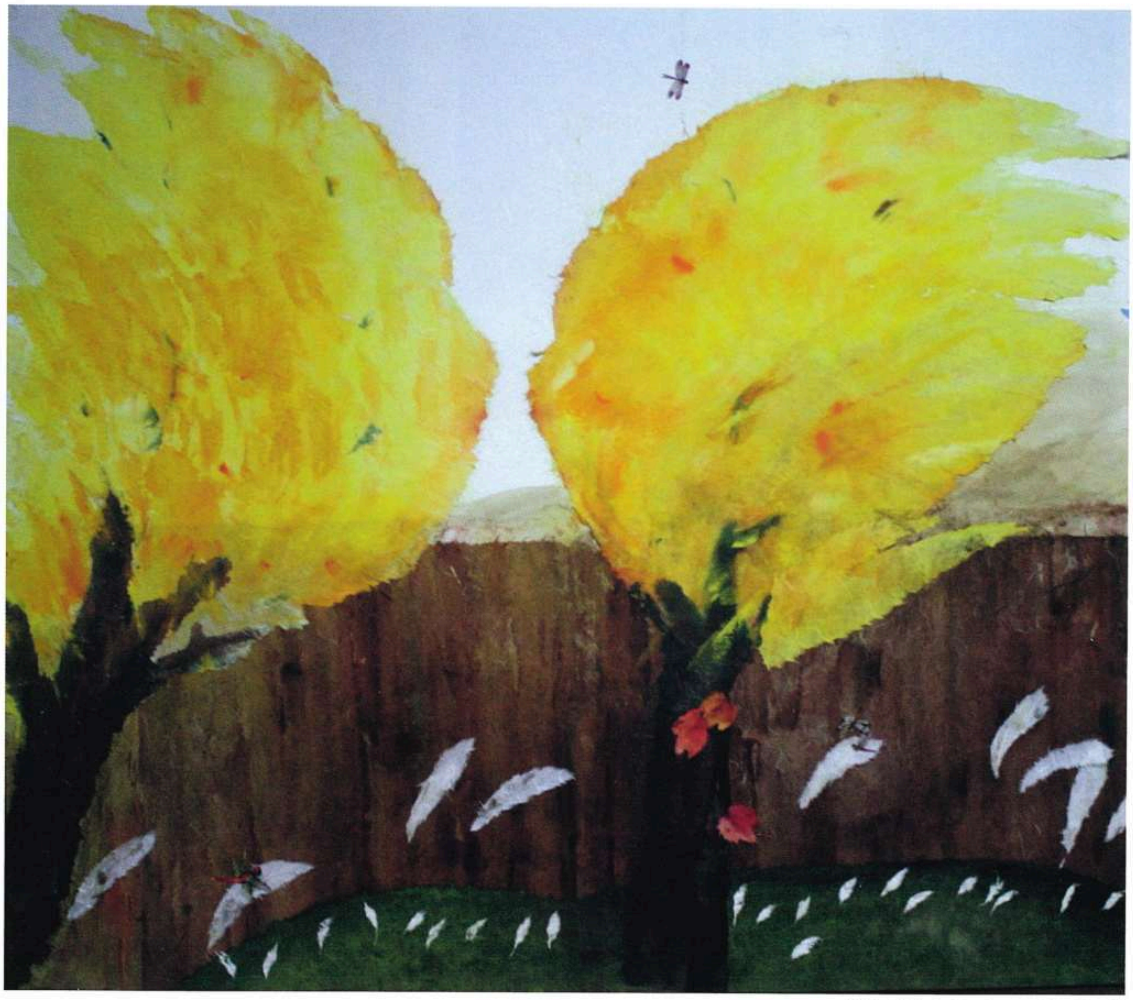


비상을 꿈꾸며 / 1200x600 (mm) / 천+수묵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푸른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푸른 바다에 묻혔다.
대학 때 같이 작업하던 동기도 있었고 知人의 피붙이도 있었다.
남의 일이 아니었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탐욕(貪慾)이다.
필요를 넘어 부리는 욕심이 탐욕이다.
짐승들은 과식(過食)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부나방처럼 더 먹으려 덤빈다.
어른들의 탐욕에 희생돼버린 숱한 生命들.
그 恨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꽃잎들, 그들의 영혼이 힘차게 살아 부활(復活)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졸 • 전북회화회 · 미협회원 • 現) 남원여고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 손전화 : 011-681-7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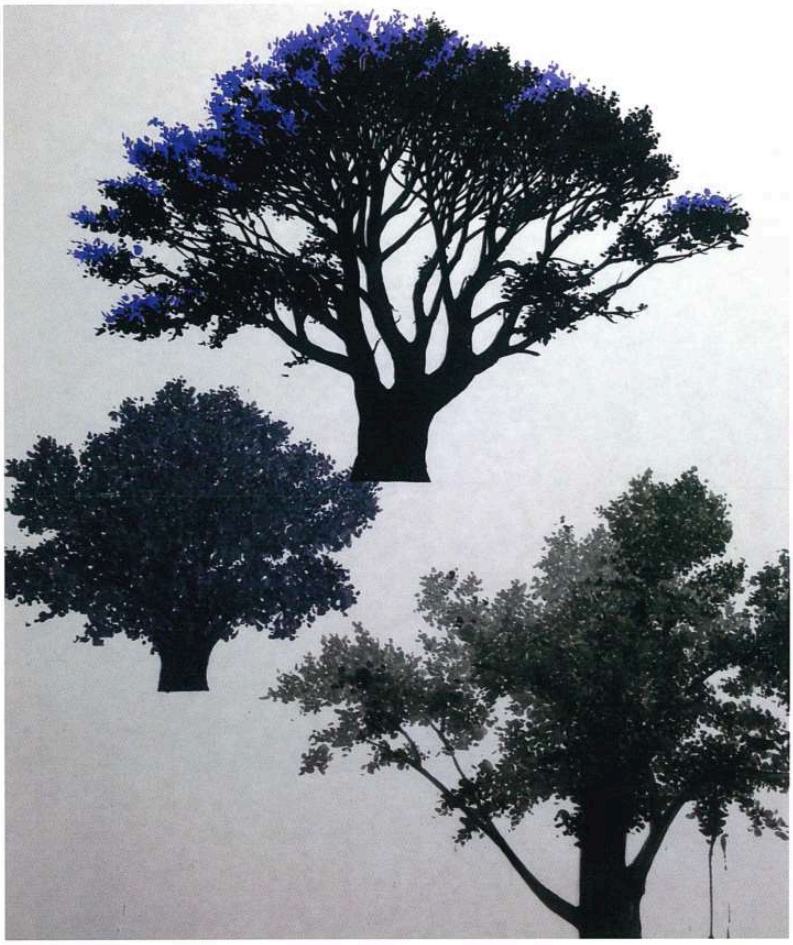


가을 동화 / 163×130 cm / 한지에 채색

바람과 햇살이 좋은 가을날에 붓을 잡으면
산골 언덕배기에 따스하게 자리 잡고 살았던 나의 어릴 적 동화같은 장면들이 떠오른다.
담쟁이 넝쿨 빨갛게 물들어 가는 날
노오란 빛깔의 화사한 한 쌍의 은행나무가 지나가는 바람에 이야기 나누듯 정겨웠고
바람에 살랑이는 억새조차 잠자리의 놀이터가 되었던 가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련하다.

송 태 정 (Song, Tae-jeone)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7-12 개인전3회 (소리문화전당) • 2011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LA-verdugo gallery) • 2013-14 센디에고에 부는 바람전(미국 캘리포니아)
• 2004-14 건지전(세종문화회관, 교동아트센터 등) • 2014 전북회회화전 (인사아트 갤러리) • 그외 다수 전시 및 수상 • 현) 건지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 현) 전북 완주군 동양초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번지 진흥더블 파크 311동 504호 • 전화 : 010-9860-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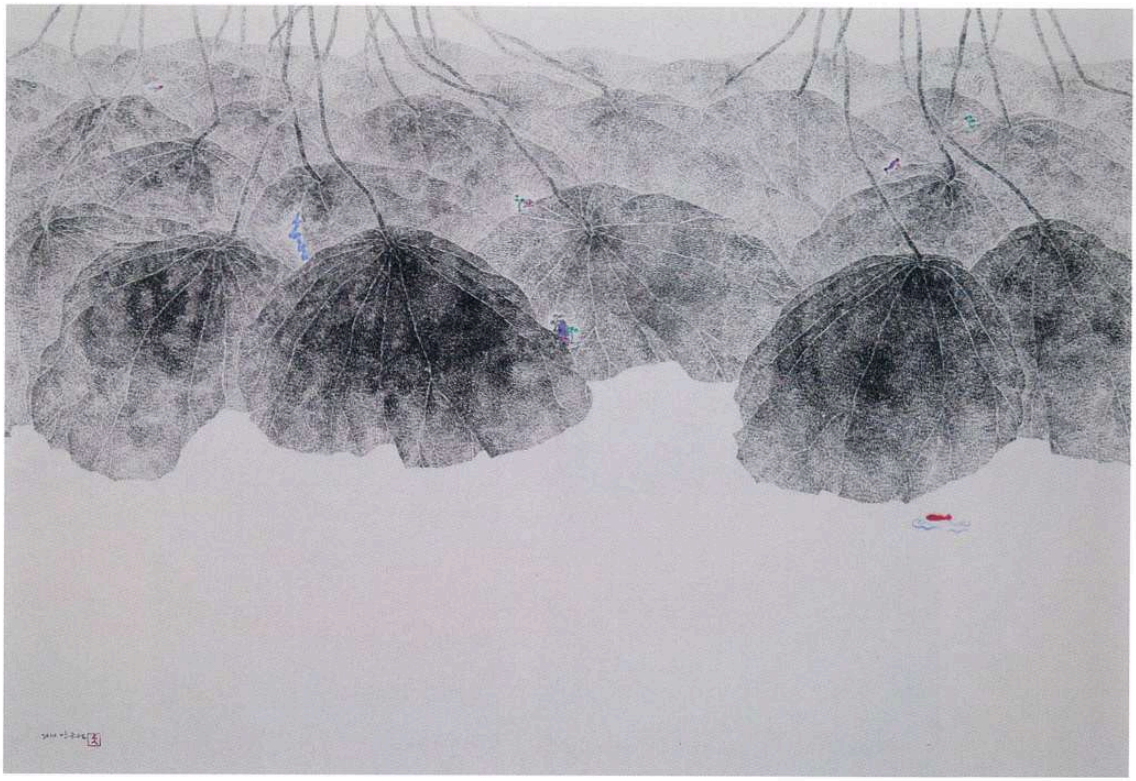
내면의 색 / 162×130cm / 장지에 수묵채색 2014

외면을 중요시 하는 눈
그안에 그들이 가진 색을 볼수는 없는것일까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색깔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나의 거울속에 잣대로 비추어 볼 뿐이다.
내면에 가진 그들만의 이야기들 그들만의 색깔의 다양성을 표현하면서
그안에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는 무슨 색일까?

송 현 성 (Song, Hyeon-seong)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졸 • 現) 전주입시미술학원 운영 • 현)전북회회회 회원
• 주소 : 전북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 5/1403 • 전화 : 010-6794-4568 • E-mail : pridehs2@naver.com



산 · 나무 · 그리움 / 163×130 cm / 수묵담채 2014

아침 해가 뜨고 반쯤 피어난 연꽃에 햇살이 비칠 때 즈음, 연못으로 발길을 옮겨 몇 포기 안 되는 연꽃을 세며 내 안에 스며드는 평온함에 감사의 날들을 보냈다. 지금 그 꽃잎 들은 고고하게 피어있던 순백의 정기와 함께 하나, 둘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고 남아 있던 연잎은 흙 갈색으로 변해 속이 까만 물속에 잠겨 처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세필로 그렸다. 왜 그리고 있는지 순간순간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며 앉아 있었다. 손이 시리도록 차갑고 까만 연못의 물속에는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낸 빨강 무늬 붕어가 그 안을 맴돌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

안 순 금 (An, Soon-geum)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 학 · 석사, 영국 코벤트리 대학 석사 • 개인전 3회 • 단체전 및 기획전 : 젊은 세대 새로운 시각과 조형전, 전라한국화제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 '전북 미술의 조명'
• 現)전북회화회 회원 • 現)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 • 전화 : 010-2635-6314, 063) 546-2517 • E-mail : f12-4@hanmail.net



꿈의 정원 / 163×130 cm / 수묵담채 2014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엄 기 석 (Eom, Gi-seok)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졸업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 개인전 5회 • 초대전 다수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삼호아파트 2동 609호 • 전화 : (H)063-242-8673 (S)063-711-7754 (H.P) 010-3681-8673 • E-mail : egs3344kr@hanmail.net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 72.7×60.6cm / 장지, 먹, 채색

사람은 그 타고난 재능이나 천성까지를 포함한 각자의 처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에 한번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검토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미(美)의 가능성을 끌어내어 확대하는 재주를 부려줄 수는 없을까?
가끔 이같은 생각속에 가능성을 자기속에서, 삶이 참으로 큰 기쁨을 가져온다. 인간은 창조적인 활동에 가장큰 행복감을 맛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고 능력개발은 바로 창조적인 활동인 것이다. 아름답고 슬기로운 동시에 현명히 사려깊어, 속물스럽지 않을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정신의 깊이가 더욱 영롱히 빛날 것을 바라며 작품활동에 임하고 싶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과 전공) •개인전 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焚奐**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010-3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awake in the park / 72x60cm / 캔버스에 아크릴 2014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며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주는 놀라움 그리고 그것은 내게 완전한 자유의 느낌을 주며,
이는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작가의 동경(憧憬)이 담겨져 있다.

이 동 형 (Lee, Dong-hyoung)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 개인전 : 2011 Awake in the park (공원에서 깨어나다) • 그룹전 : 2014 전북회화 정기전 (전북도립미술 서울관), 2014 전북도립미술관-강소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특별전 (강소성미술관,중국)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호반리젠시빌 102동 2004호 • 전화 : 010-3048-7566 • E-mail : tamguboy@naver.com



공존-명주꼬리나비와 야생화 / 60x73cm / 장지에 먹과 채색 2014

공존

각기 다른 사물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먹과 채색이 공존하는 것 또한 서로의 다름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답다고 느껴서 이런 작업을 하게되었다.
사물이든 현상이든 자연과 소통하고 느끼는 삶을 추구하고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이 봉 금 (Lee, Bong-Keum)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 개인전 제8회 •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 주소 : (560-89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안리즈아파트 101/504 • 전화 : 010-9277-7231 • E-mail : pumucle200@naver.com



물 / 160×130cm / 한지·수묵담채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나의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생각한다.

한적한 오후 개울가를 노니는 물속의 작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니 잔잔한 물결이 편안하게 보였다.
나의 삶도 잔잔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길 꿈꾼다.

지두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담고자 하였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은 때론 거침도 때론 변화도 가슴에 품고 겸허하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개인전 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전북회화회, 한국미협 회원 •인터넷묵객 서예문인화협회 추천작가
•현)남원고등학교 미술교사 •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산 4길 111-6 •TEL : (자택) 063-547-5896, 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忍苦 / 126×64cm / 화선지 먹 수묵담채

스테인드글라스 형식으로 꾸며졌다.
회귀어종 물고기들의 귀향은 처절함 그대로이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자연법칙이다.
사람이 고향을 버리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출향하여 공부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는 고향을 저버릴 수 없는 것 아닌가.
조서시대에도 벼슬을 얻거나 그 후에는 귀향하여
후학을 가르치고 고향을 지켜 왔던 것이다.

이 승 훈 (Lee, Seu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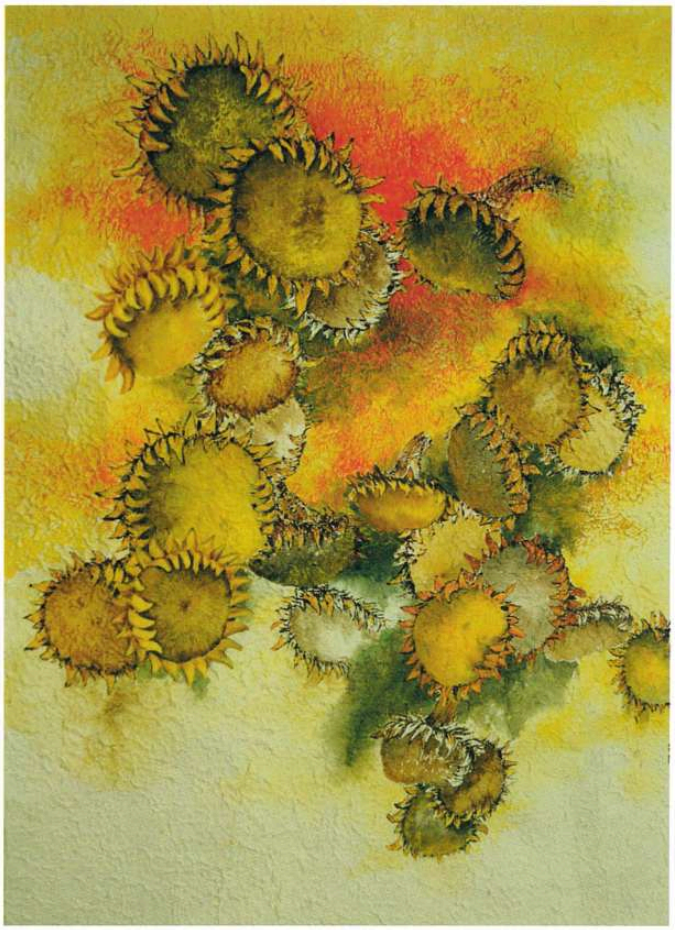
• 전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 개인전 3회 • 전북의 산하전 • 한국 100인 자연전 • 전라한국화제전 • 전북중견청년작가전 • 전북 인물 파노라마전
• 시화집「빈들의 소곡」,「달개비 꽃 하늘」출판 • 전주대 강사 역임, 군산대성중학교 근무
• 주소 : (570-090)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 E-mail : misege@hanmail.net



다짐 / 185.5×112cm / 광목에 혼합재료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개인전 4회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우묵회 회원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 현대아파트 101-202 •전화 : 010-3299-2221



기다리는 마음 / 92×116cm / 장지에 수묵채색

한 여름 땡볕에 거드름을 피우며 자태를 뽐내더니,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시들어 갔다, 해바라기가……
파란 하늘에 우뚝 서 있는 노오란 꽃을 보고 싶었는데, 무엇이 그리도 바쁘다고 서둘러 피었다 시들었는지,
어느 날 우연히 바라보니 언제 피었는지 새파란 하늘에 노오랗고 커다란 꽃이 땅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다.
아! 이 녀석들이 내 마음을 짐작했구나.
다 시들어 없어진 줄 알았던 해바라기가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준 것이다.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성급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웠다.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그 꽃들을 다시 보며 나도 용기를 갖는다.
흐트러지려는 내 마음을 다 잡아본다.

이 진 숙 (Lee, Jin-sook)

• 원광대학교 졸 • 개인전 7회 •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67-17 • 전화 : 010-4605-9876 • E-mail : waltzz@nate.com



상생-합, Living together-Unity / 30×65cm / 닥죽 금박채색, Mulberry paper, Golden leaf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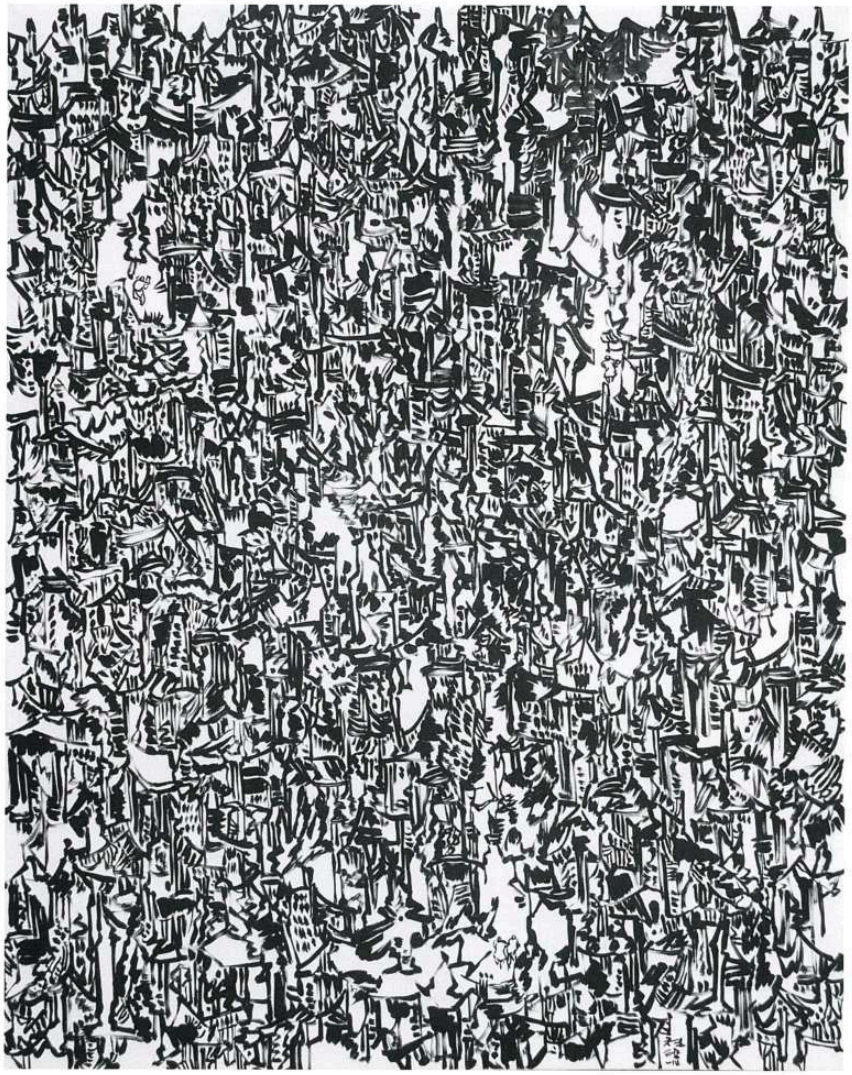
상생(相生) – 금(金,Gold) 이야기

나의 작품은 금과 한지의 결합 즉 동거에 있다. 개금기술과 금박기술의 공예적인 요소를 한지라는 재료를 통하여 회화작업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금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불변의 황홀한 빛깔을 통하여 금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재해석하고, 상생의 의미를 부여 하였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장수(長壽)와 수복(壽福)의 상징의 해, 달, 다섯개의 봉우리, 물과 거북이는 일반서민들이 애용하였던 민화에서 차용하였으며, 중앙에 배치한 금박의 황색(오방색중 황색은 중앙을 뜻하는 색으로 옛날 황제나 왕을 뜻하는 색이다)은 우주의 중심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아이콘들은 음과 양, 왕과 백성, 자연과 인간 등의 상생(相生)을 뜻한다.

이 철 규 (Lee, Choul-gyu)

•전주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6회(서울, 전주, 미국 등) •전북 청년미술상 및 대한민국 청년작가상 •ART FAIR 21(슈타텐하우스, 독일 쾰른) •2012 AAF Singapore(F1 Pit BD, 싱가폴) •2012 KIAF(KOAX, 서울) •2012 EUNIQUE 공예 디자인 페어(MESSE, 독일 칼스루헤) •국제현대회화교류전(時間, Time)전(Bes Gallery, 미국 뉴욕)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이상과 허상에 꿈꾸다(전북도립미술관, 전주) •2013 ART Karlsruhe(MESSE, 독일 칼스루헤) •우진청년작가전(우진문화공간, 전주) •2013 KIAF(COAX, 서울) •작품소장:전북도립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전주역사 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백운장학재단 •현) 예원 예술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덕적골1길 오네뜨아파트APT 103동 401호 •TEL : 070-7572-4247(집), 063)640-7205(학교), 010-4279-3775 •E-mail : cicu111@hanmail.net



city14-1 / 116x91cm / Muk on canvas 2014

도시(city)는 새로운 자연이다. 이미 도시는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한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 철 량 (Lee, Chou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 2013 KIAF(Gallery MEE)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현)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墨想-2014 / 100×75cm / 수묵담채 2014

붉게 타오르는 저 바위산

세월은 어느덧 그 정점을 넘어선다.

.....

이 환 배 (Lee, Whan-ba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강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現)그린섬 총원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현대4차@ 402-204 •전화: 010-3673-1562, 063)283-6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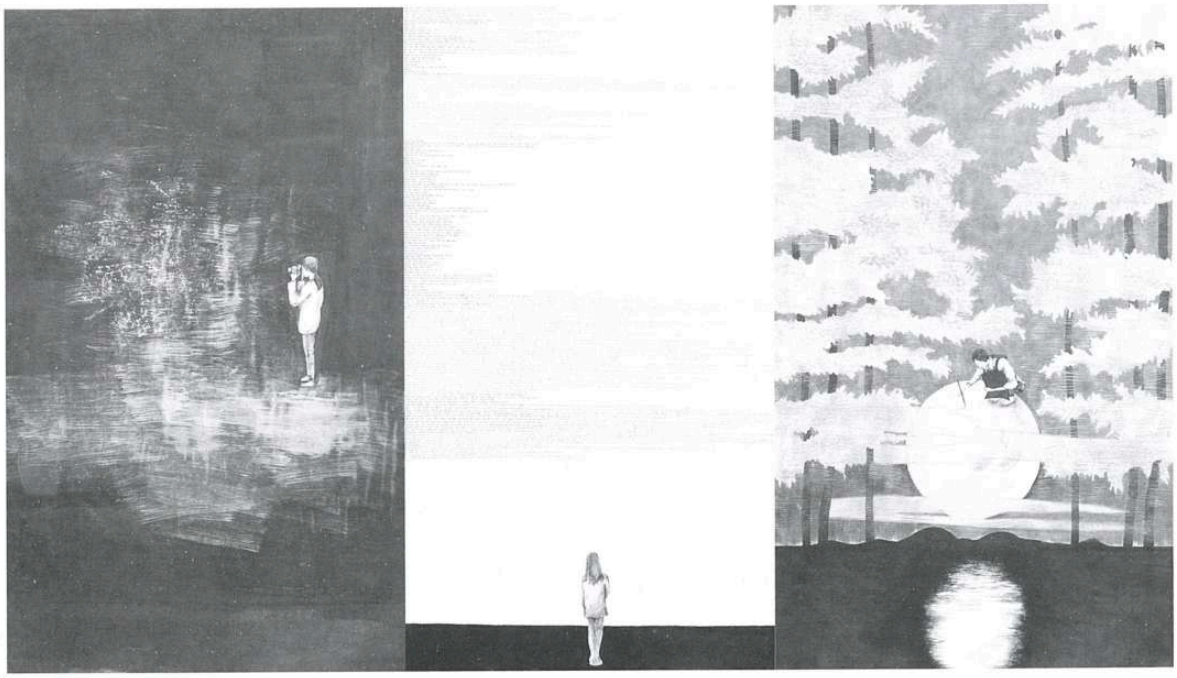


묵상 / 60×60cm / 천에 수묵

수묵화에 대한 묵상....
붓끝에서 산이 다가온다.
붓질에서 강이 흔들린다.
먹빛에서 바람이 인다.
손끝에서 자연이 숨을 토한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먹빛을 안아본다.

정 미 현 (Jeong, Mee-hyun)

• 개인전 7회 • 단체전 및 초대전 100여회 참여 • 현) 전주동중학교 재직 • 메일 : hyun3560@hanmail.net • 전화 : 010-3682-3560



Seek / 80×13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4
Wall to Climb Over / 72.5×13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4
Daydream / 80×13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4

늘 전시를 앞두고 빈 화판 앞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림은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며 전달해야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작업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은 것 같다.

이번 작업을 통해 잠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많은 구상이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현재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구상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표현에 이르는 과정을 담아
그 무한한 공간의 중심에 서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최 윤 진 (Choi, Yun-jin)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회화과 졸업 • 2013 제2회 전주 부채 단오 예술제 (한옥마을 부채문화관, 전주)
• 2012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아트페어 (한옥마을 태조로쉼터, 전주) • 2014 제7회 모던칼라 기획전 (교동 아트 스튜디오, 전주)
• 주소 : 군산시 용둔길 12, 103동 204호(미룡동 금광베네스타) • 전화 : 010-4336-7320 • E-mail : roooooo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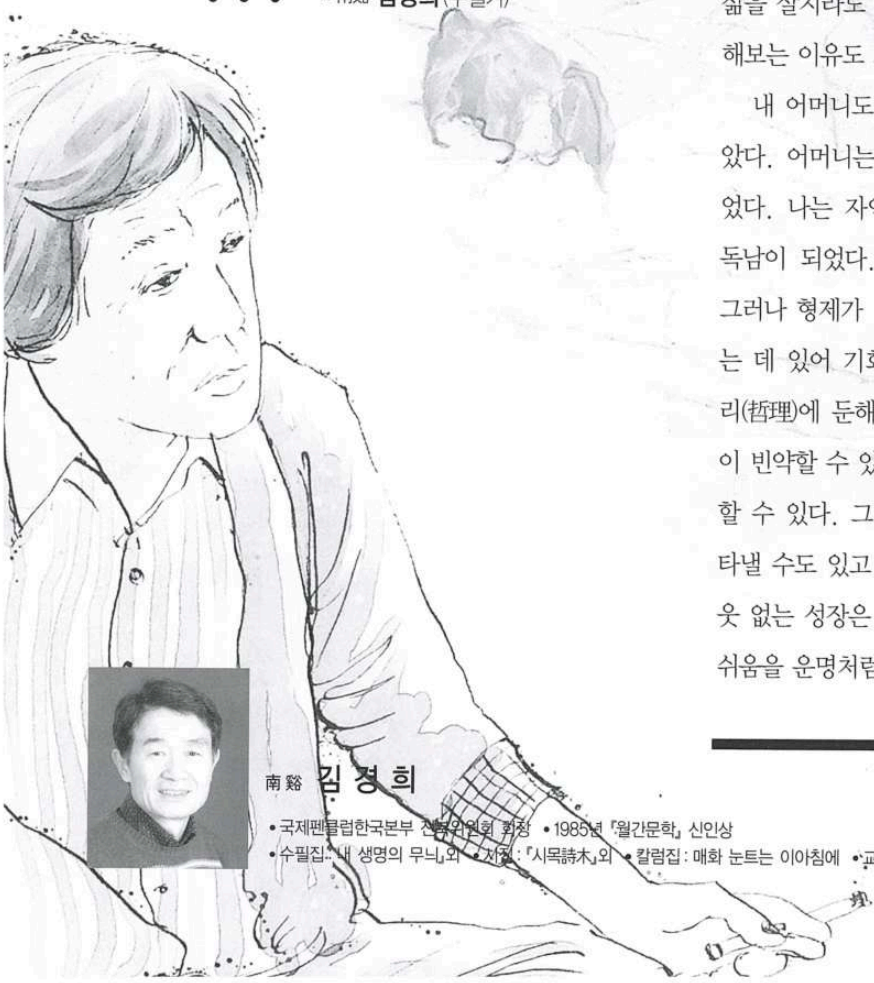
늙어 외롭지 않으려거든

• • • 글 南谿 김경희(수필가)

❀ 생명이란 본래 외롭고 쓸쓸한 거다.

밀림 속 호랑이의 어슬렁거리는 걸음에도, 혼자 앉아 있는 눈빛에도 외롭고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펭귄 떼 속에서 알을 지키고 서 있는 그 한 놈의 모습도 외롭고 쓸쓸했다. 십조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재벌 총수가 두 딸 부축을 받고 서 있는 그 눈동자에도 깊고 무거운 고독감의 독성을 읽을 수 있었다. 차라리 평범한 서민의 자리에서 늘 배고픈 부자요 슬픔으로 배부른 삶을 살지라도 덜 외롭고 덜 쓸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이유도 그 어디에 있다.

내 어머니도 나도 외로움의 평균 수위를 넘는 삶을 살았다. 어머니는 열여섯 나이에 시집와 나 하나로 단산되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순수 혈통으로써 못 박힌 무녀독남이 되었다. 형제가 없다고 다 외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제가 없는 사람의 홀로 성장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데 있어 기회의 결핍이 주어질 수 있다. 공생하는 철리(哲理)에 둔해지기도 쉽다. 그러므로 어려서 정서의 뜰이 빈약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있을 때' 더 실감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과 우리 속에서 나의 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분발의식을 길러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웃 없는 성장은 키 큰 나무처럼 하늘로만 솟는 빈약한 아쉬움을 운명처럼 살아낼 수밖에 없다.



南谿 김 경 희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전통위원회 회장 • 1985년 『월간문학』 신인상
• 수필집 : 『내 생명의 무늬』외 • 저서 : 『시목詩木』외 • 칼럼집 : 매화 눈트는 이아침에 • 교재도서 : 『문학의 이해와 수필의 길』 등

나는 가끔 함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시를 읽는다. 새 학기 개강 때도 읽어주고 싶은 시 중의 하나이다. 평생 중이염을 앓아온 어머니.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이모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귀에서 고름이 나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아들을 위해 설렁탕을 시킨다. 그리고 주인아저씨를 불러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한다. 이어서 주인아저씨 안 볼 때 자기 국그릇 국물을 아들에게 부어준다. 아들 함민복은 그만 따르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투가리와 부딪히고,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들은 울컥 치받는 감정을 깍두기를 씹으며 달랜다.

내 어렸을 때 한국의 시골마을은 폐허 위의 재건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 몫이었다. 교육도 인간성도 문화도 사치스런 단어요 바다 건너 사람들 이야기 같았다. 삶에 지쳐 마지못해 사는 사람의 가슴 속 정서는 황폐함 그대로였다. 그 이후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도 한동안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웬수다. 쓸데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쳤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엄마에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제발 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되지 마라."는 등등의 언어폭력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다. 칭찬으로 키워야 할 자식들을 말과 눈치로 계속 기죽이면서 키우는 부모가 의외로 많았다는 반성어린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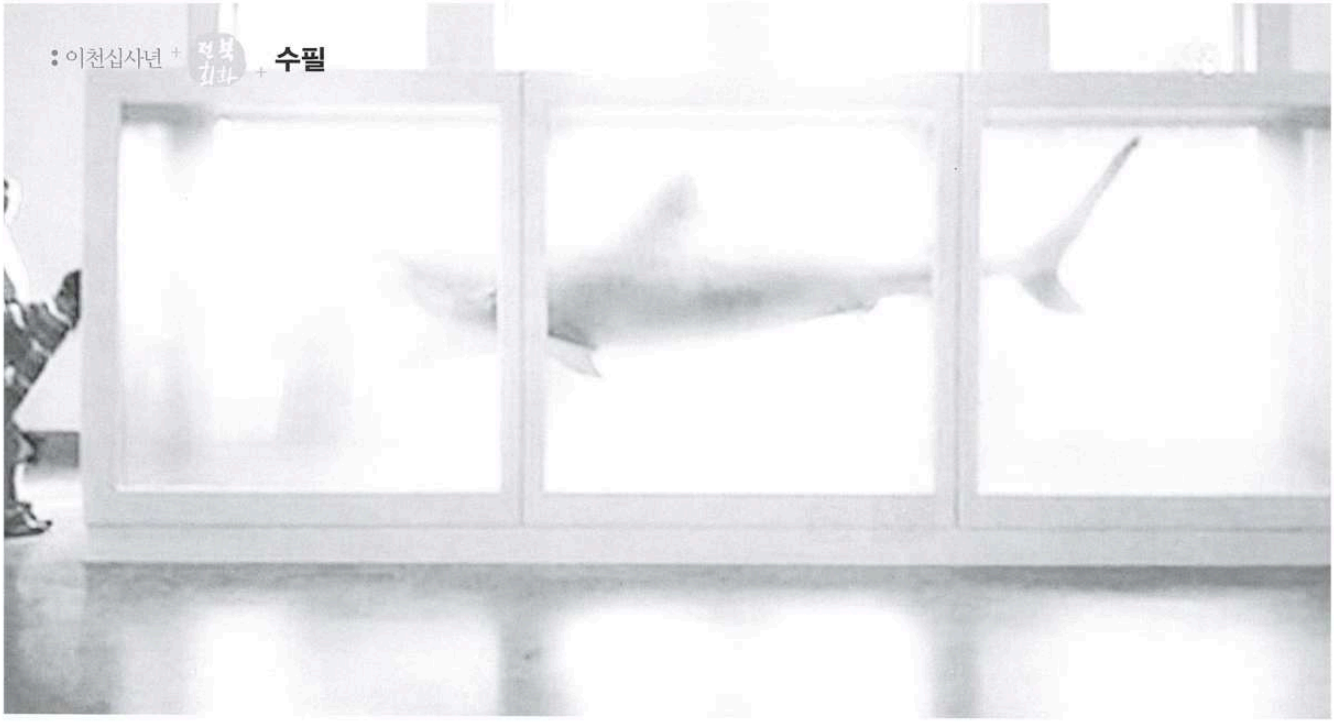
오늘의 어린이들은 잘사는 만큼 돈으로 키우는 것 같다. 돈이 있어 좋은 학구로 보내고 유명한 학원을 찾아다닌다. 족집게 과외 선생을 만나고, 성형수술까지 해준다. 그리고 고급 옷으로 신분을 과시한다. 어린이들은 잠이 부족할 정도로 이곳저곳 배우러 다닌다.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고 어머니는 매니저가 된다. 우리 시대 어머니의 치마폭에서는 짜고 비릿한 반찬 냄새가 낫다. 그래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늙어가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싫지 않았다. 밉다고 욕을 해도 밉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당신의 희생으로 나를 길렀지 돈이나 권세로 해결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이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다. 과정에서 요양병원도 다녀보았다. 세상이 변했다고 했다. 자식들이 부모를 보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함께 살지 않는 것은 법적 권장 사항 같이 된 분위기라고 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늙을수록 화폐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이가 가볍지 않는 탓일까. 내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몇 시간이나 함께 놀아주었던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던가? 과연 내가 길렀다고 할 수 있는가.

아이를 안고 함께 울어본 적이 있는가. 진정한 칭찬을 몇 번이나 해주었는가? - 더 늙어 외롭지 않으려거든 지금 당장 아들딸과 대화 할 일이다. 그리고 따뜻한 정을 주어 친해져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정이 들어야 한다. 늙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거든. 囚



주.검.에게 영원한 생명을!

데미안 허스트(1965~)에 대하여

글 **김영숙**(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이 없다는 얘기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산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선 매일 매일, 하루 하루의 삶은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된다. 하루 또 하루가 무한정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열심히 살아야 할 하등의 의미가 영원히 증발된다.

뿐만 아니다. 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나 권력 역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리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진창 속에 집어넣는 인간의 탐욕은 결코 그 끝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없으므로 어떤 형태의 범죄도 거의 다 가능하다. 감옥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일이므로. 어차피 죽음이라는 죄과를 씌울 수 없어,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될 테니까. 감옥소에 들어가 봤자, 끝도 없는 바다에서 퍼낸 한 숟가락의 바닷물보다 못할 것이니까.

요약하자면 죽음이 없다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윤리와 덕도 그 의미를 상실한다. 결국 죽음은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한 삶의 뒷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만을 바라볼 뿐, 생명만을 찬양할 뿐, 죽음을 직시하지 않는다. 아니 죽음을 혐오하고 죽음에서 도망치려한다.

영원한 저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 데미안 허스트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핵심 테마로 잡은 생존해 있는 예술가이다. 역사상 어떤 미술도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분석하고, 탐구하지 않았다. 이집트의 미라는 저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연장으로서 시체를 다루었을 뿐, 죽음을 죽음 그 자체로 다루지 않았다. 자동차 정비사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생명과 죽음에 관심이 많아 병리학, 법의학 서적을 보며 해부도를 즐겨 그린 데미안 허스트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의식 속에 삶을 끌어 들이고 죽음과 삶을 함께 소구한다. 그는 예를 들어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의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1991)에서처럼 죽었거나 해부된 생명체(상어, 소, 양 등)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가 보관하여 작품으로 표현한다. 또는 '마켓으로 간 돼지, 집에 있는 돼지'(2008)나, '죽음'(1996)에서처럼 정지된, 혹은 토막난, 혹은 갈라진 시체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좌.우 붙어있는 통합된 생명체가 누리는 생명의 환희 내지 살아있는 즐거움을 반어적인 방법을 통해 상상력 속에서 감각적으로 소환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즉 내세를 믿지 않는 데미안 허스트에게 있어서 삶은 다른 생명체들의 죽음과의 긴밀한, 영속적인 순환과정의 한 고리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400마리 가량의 나비가 음식을 먹고 날다가 알을 낳고, 부화하고, 죽어가는 순환과정을 보여주는 '사랑의 안과 밖'(1991)에서처럼 삶은 죽음과의 영원한 교체, 및 순환의 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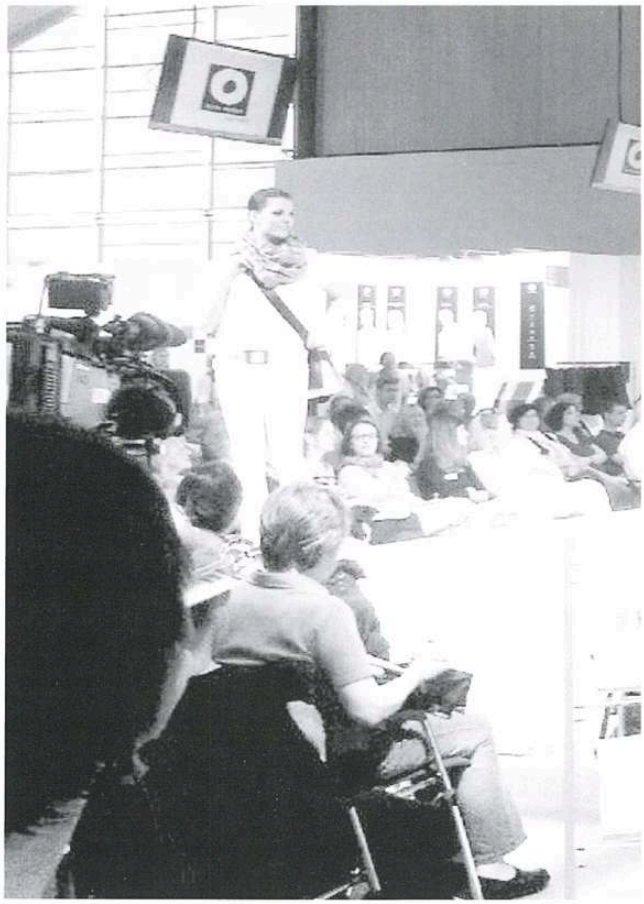
움직이지 못하는 정지된 죽음과 가장 대비되는 삶의 환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비의 날개짓이리라. 기독교적 부활을 믿지 않는 데미안 허스트의 '천국으로 가는 문'(2007)은 더 이상 성부, 성자, 성인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닌, 화려한 문양의 날개를 펼쳐 보이는, 셀 수 없이 많은 죽은 나비들의 문양으로 채색된다.

주검에게 생명의 이면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부여하고자 한 데미안 허스트. 그는 해골에 다이아몬드 8500개를 박아 넣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라는 작품을 통해 더욱 더 명성을 쌓고, 더불어 현존하는 최고 자산을 가진 예술가(자산이 약 1조 600억 원으로 추정됨)로 등극했다. 그의 이와 같은 불세출의 성공은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더욱 더 통렬히 깨닫고 강렬하게 느낀 예술가다운,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이력이 아닌가 싶다. 囚

2014 EUNIQUE전을 참가하고...

2014년 유닉전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남부의 문화예술도시
칼스루헤(Karlsruhe)에서 열렸던 eu-nique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물게 열리는
6회의 공예&디자인, Arts 전문 국제 전시
박람회 및 어워드이다.
2012년에 예원예술대학교 한지문화연구소
부스로 참가하기 시작 한지 어느덧 올 해가
3년째 되었다.
첫 참가 때부터 유닉전이 공예,
디자인과 Arts를 결합한 창의적이면서
독톡하고 실용적인 예술공예 작품들을
위주로 페어를 운영하는 만큼
예원예술대학교 한지문화연구소는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조형작품을 유럽에 선보이고
한지의 우수성을 전파하자는 목적이 페어
참가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글 **이철규**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1.

먼저 유닉전의 성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 eu-nique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다양한 실용예술품, 디자인, 공예의 전세계 트렌드를 한 눈에 경험하실 수 있는 arts & crafts (Design)페어이다.
- eu-nique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직접 판매까지 가능한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arts & crafts (Design)페어 이다.
- eu-nique 중부 유럽의 교통 요충지이자 문화예술 도시인 칼스루헤에서 열리며, 여러 EU 국가들의 많은 실용예술/디자인/공예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과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arts & crafts(Design)페어이다.
- eu-nique EU의 명망 있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참가 작가/작품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을 한다.
- eu-nique EU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미디어와의 제휴/후원을 통해 참가 작가의 작품과 재능이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



참가분야로는

- Interior Design : 유리, 나무, 도자기, 금속, 종이, 가구, 램프, 텍스타일, 타피스트리, 카펫 등
- Jewellery and utensils : 금, 은, 보석류, 테이블보, 시계 등
- Fashion : 모자, 백, 스카프, 옷 등
- Outdoor : 나무, 세라믹, 금속, 가구, 조각 등
- Toys, dolls and marionettes(장난감, 인형, 마리오네뜨)
- Products, institutions and services for applied arts(기성품, 학원 및 실용 예술 관련 서비스기업) 등이 있다.

대학 재학생을 비롯하여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지 3년 이내 참가자는 Newcomer라 하여 부스(4m)비를 대폭 할인해 주는 혜택을 준다.

유럽 및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참가하는 유닉전은 특히 유럽국가의 수준 높은 현대적 공예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작품들은 전통적인 것보다는 매우 현대적이고 간결하다. 그래서 유럽 공예의 미래 트랜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페어이며 특히 텍스타일 및 유리 공예작품들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준다.

유닉전 전시 기간 중에는 패션쇼 형태를 빌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독특한 행사가 있는데 참가 부스를 대상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신청을 하면 전시장 중앙에 설치 한 패션쇼 장에서 모델들이 신청 작가의 작품들을 착용하고 워킹을 하여 홍보를 해준다.

효과가 좋아 많은 참가자들이 신청을 한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모델이 워킹을 하면 유닉전 전시장이 전체적으로 활기차게 해주고 홍을 복 돋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특히 페어가 열리는 전시장 칼스루헤 MESSE는 도시 중심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한 자연 숲속에 위치해 있다. 칼스루헤 중앙역에서 전철로 약 20분 거리 이다. MESSE 건물은 아치형 단층형식의 건물로 되어있어 숲속 자연림과 절묘하게 조화롭게 자리작고 있다. 건물 내부는 알 ;] 형 천정에 외부의 공기가 직접 유입 될 수 있도록 개폐장치가 되어 있어 - 직접 순환하게 하는 통풍형식을 취하고 있어- 하루 종일 건물내부에 있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 할 수 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독일 건축의 장점을 느낄 수 있다.

이번 2014 유닉전에는 한지문화연구소 부스와 Newcomer(본교 재학생)부스 두개를 신청하여 참가하였다. Newcomer부스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이 참가하기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전시기간 중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외국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본인의 작품들을 부스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영어로 대화하며 작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해 봄으로써 얻어지는 현장 경험들이라 것은 결코 돈 주고 살수 없는 값진 것들이다.

이로 인하여 유닉전에 참가하고 온 대부분 본교 학생들은 언어소통의 중요성을 느껴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자기작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상품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왔기에 자기 자신의 작품 향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4유닉전에 참가한 본교 한지조형디자인과 학생들은 귀국길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너무 큰 경험을 하였고 다음에 한번 더 참가한다면

본인 작품향상과 언어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3.

1. 유닉전 패션쇼 광경

2. 학생부스

3. 예원예술대학교 한지문화연구소 부스

4. 칼스루헤 미술대학 견학



4.



열.정.시.대

전 시 를 다 녀 와 서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글 **송태정**(전북회화회 회원)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세계미술거장전
'열정의 시대 : 피카소부터 천경자까지'가
10월 24일부터 2015년 2월 22일까지
미술관 본관에서 진행 중이다.
모더니즘의 출발인 인상파의 모네, 피사로, 입체파의 피카소,
브라크 등의 거장과 막스 리버만을 비롯한 독일작가들과
천경자 이중섭, 박수근 작품 100여점을 통해
유럽과 한국의 모더니즘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되어있다.

2.





3.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자 꽃을 든 화사한 귀부인이 나를 반겼다. 에두아르도 레온 가리도의 '귀부인' 작품을 포토존으로 하여 실제 작품의 귀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설레임과 앞으로 내가 보게 될 전시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게 해주었다. 이 전시는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시대별, 주제별로 구성되었다. 모더니즘 이전의 유럽미술, 모더니즘의 출발인 인상주의, 모더니즘의 정점인 입체주의, 한국의 모더니즘, 베를린 분리파 순으로 전시되었다.

제1전시장은 비디오를 보는 곳으로 작가 특히 천경자작가의 삶과 작품들을 소개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모든 전시를 본 후 마지막에 관람을 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관람 시작, 제2전시장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나를 유혹하였다. 인상파 이전 서양미술 전통을 보여주는 고전작이자 이번 전시작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인 프랑스 오라스 드 카이아스 작 〈목욕하는 여인〉이었다. 책으로만 보았던 하얀 피부가 유난히 눈에 띄는 사실적인 유럽풍의 고전작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역사적 인물을 비롯한 누드와 초상을 다룬 인물화, 일상을 담은 풍속화, 자연을 노래한 풍경화,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정물화 등 로코코 시대로 추정되는 인상주의 이전의 유럽전통 회화작품들이 다수 있었다.

제3전시장에서는 모더니즘작품들이 등장한다. 모더니즘의 출발선상인 '인상주의'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물의 색을 표현한 미술운동이다. 대표작가 모네는 하나의 소재를 빛의 변화에 따라 그리는 등 고유색이 아니라 보이는 색을 표현하였다. 이 전시장에 들어서자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의 있었다. 뿌연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강물위에 놓여있는 다리가 나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나는 안개속의 빛에 쏙 빠져 들어갔다. 모네의 '워털루 다리'는 붓질 하나하나마다 쉬임 없이 원색들이 빛나고 있었다. 강물위의 반짝이는 아침 햇살 즉 빛의 인상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노신사는 자신은 그림을 잘 모르지만 이 100여점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맘에 든다고 한참을 서계셨다.

1. 에두아르도 레온가리도_귀부인
2. 오라스드카이아스_목욕하는 여인
3. 피카소_모자쓴 여인
4. 모네_워털루 다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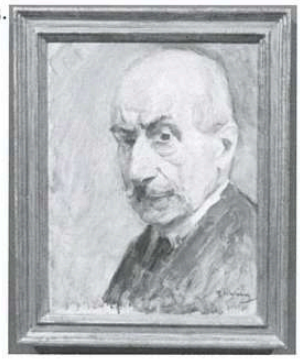


발걸음을 옮겨보니 브라크, 피카소 등 입체주의 작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더니즘의 정점인 '입체주의'는 형태를 분할, 재조립하면서 19세기 이전 회화의 원근법에 의한 공간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작가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화면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번 전시를 통해서 모더니즘의 대표화가인 피카소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었다. 피카소의 '모자 쓴 여인'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도드라지는 붓질, 어둡고 단조로운 색,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얼굴을 합성시켜 어찌 보면 괴물 같은 얼굴로 독특한 여인들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새로운 장르로 여인과 사물들을 독특하게 묘사했다. 피카소의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아마도 전쟁의 참화를 겪고 예술가로서 고뇌와 번민의 결과일 것이다. '모자 쓴 여인'은 사람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근대 모더니즘의 정점에 이르는 작품이다. 피카소는 많은 작품에서 여자들을 작품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무엇이 피카소로 하여금 여인을 작품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피카소로 하여금 사람의 얼굴을 괴기스럽게 조각조각 붙여 놓은 듯하게 그리게 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제4전시장에서는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근 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등 국내 거장의 작품과 전북 출신 작가 진환, 박래현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유럽 모더니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한국미술의 모더니즘'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암울한 역사에서 출발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암울한 역사에서도 꽃피운 한국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다간 이들 예술가들과 운명의 퍼즐을 맞추듯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중섭의 은지화는 혹독한 환경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작지만 커다란 에너지를 발산하였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가족' 작품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떨어져 살면서 종이살 돈이 없어 담배 갑의 은지에 그림을 그렸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전해져오는 그림이었다. 빛의 화가 오지호 · 김주경 등의 작품은 서구의 인상주의를 확실히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한국적 모더니즘을 경험하게 하기 충분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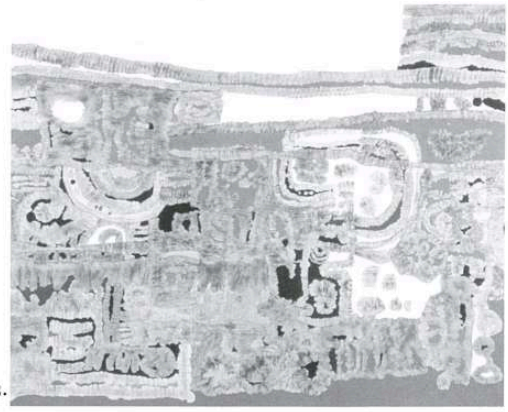
6.



7.



8.



9.



5. 전시장 모습
6. 막스리버만_자화상
7. 이중섭_가족
8. 박래현_영광
9. 진환_복숭아와 아이들

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진 환과 박래현의 작품을 만나면서 두 작가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꼈다. 진 환작가의 '복숭아와 아이들' 은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자연의 모습이 꿈속 동화처럼 보였다. 또한 현대 한국화의 개척자중의 한분인 박래현작가의 '영광' 은 은은한 수묵 담채와 강한 채색의 만남으로 한국전통적 미감에 바탕을 둔 조형성과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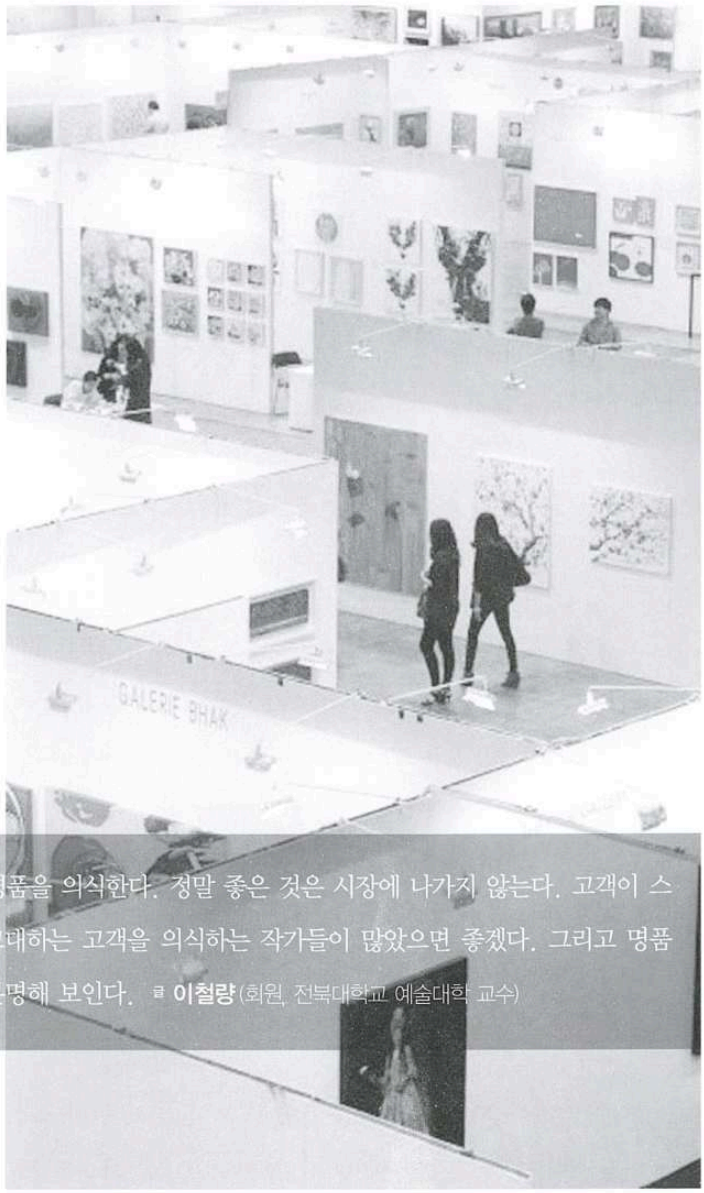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제목으로 '열정의 시대 –피카소에서 천경자까지' 라고 나왔기에 천경자 작가의 전통수묵을 근대화시킨 그녀만의 독특한 채색 작품을 한 점이라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왔는데 드로잉작품만 있어서 무척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제 1전시장에서 천경자작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비디오를 통해 그녀의 열정적인 삶과 작품의 세계를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제5전시장에서는 독일 미술의 인상주의 작가 막스 리버만의 작품과 베를린 분리파의 그림들에서 독일의 인상주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의 인상주의의 거장 막스 리버만의 작품은 다소 생소하였지만 독일의 유명한 작가로 꼽힌다고 한다. 그의 햇빛이 담긴 '자화상' 이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도립미술관의 붉게 물든 가을 단풍잎을 주으며 한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온 피카소, 모네, 이중섭, 천경자 등 여러 작가와 또한 그들의 귀중한 작품들과 호흡하고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囚

아트페어의 허와 실



정말 명품은 고객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실 고객이 명품을 의식한다. 정말 좋은 것은 시장에 나가지 않는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번에는 어떤 명품이 나타날까를 고대하는 고객을 의식하는 작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품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ㅁ **이철량**(회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오늘날 미술활동은 작가, 감상자 그리고 화상(갤러리)이 삼발이처럼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미술이 상품화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형성되었다고 본다. 물론 미술이 상품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실상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보면 미술의 여정은 상품화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그만큼 미술작품이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술작품이 일상의 상업적 활동으로서 상품이어야 하는가는 실상 지금도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어쩌면 끝나지 않을 명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미술의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미술작품이 상품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당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실 이 점은 작가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미술시장이다. 미술작품이 각종 일상용품을 펼쳐놓고 파는 시장과 같은 형식의 미술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실상 그리 많지 않다. 미술을 제법 접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미술시장

이라는 말은 낯설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아직도 미술작품이 떳떳하게 내놓고 시장에서처럼 흥정하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작품은 어디까지나 매우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미술시장이라는 말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미술시장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마도 갓 20여년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미술시장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메카니즘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작가들 스스로 이 도가니에 어느새 빠져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스스로도 깜짝 놀라울 만큼 어느새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하기야 작가라고 한들 별 수가 없다. 예술을 한답시고 이슬을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초라한 모습은 스스로 작가인척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 그들의 변명은 한결같다. 〈작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시장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술시장은 그래서 생겨났다. 아트페어는 그런 곳이다. 아트페어는 절대로 고상한 곳이 아니다. 작품이 흥정되고 예쁘게 포장되어 거실로 배달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아트페어는 절대로 예술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예술이 상품화되어 포장되는 곳이 아트페어다. 그래서 아트페어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아트페어는 곳곳에서 넘쳐난다. 아마 세계적으로 수 만개는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트페어를 하지 않은 지역은 드물다고 봐야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아트페어를 구성할 화상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트페어의 주인공은 화상이다. 아트페어의 주인공은 작가가 아니다. 그래서 작품도 주인공이 아니다. 아트페어는 화상들의 장터이다. 말하자면 화상들이 돈을 내고 장터를 만드는 곳이 아트페어다. 그러니 그들의 잔치마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트페어는 화상들이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곳이다. 작가들이 고상하게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트페어는 존재의미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아트페어에는 열기가 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아트페어는 화상들이 참가비를 지불하고 부스(전시공간)를 산다. 그래서 부스의 위치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어떻든 화상들은 돈을 들여 가게를 열었으니 어떻게 하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화상들도 이슬을 먹고 사는 족속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화상들도 장사가 잘된다는 아트페어를 골라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사가 잘 되는 아트페어는 가게비가 많이 비싸다. 점포하나 빌리는 값이 천차만별이어서 화상들도 아트페어에 참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실상 아트페어에서 돈을 벌었



다는 화상은 별로 없다는 것은 정설이다. 그렇더라도 화상들은 아트페어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고객들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즉 조그마한 화랑 전시에서 그림을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골라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림을 사려는 고객들이 아트페어로 몰리는 이유이다. 그래서 어쩌면 화상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트페어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는 화상들의 위상을 결정짓는 구조로 발전하고 말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아트페어에 참가했는가는 화상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화상들도 힘들다. 그런데 사실 화상들이 힘든 것이 아니다. 정작 죽어나는 것은 작가들이라는 것이다. 화상들이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비용을 대부분 작가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참가 부스비를 작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화상들의 여비까지 그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시장속이라 해도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그분들에게는 누가되지 않기를 빈다. 대개 그러한 명분을 지키고 있는 아트페어는 실상 참가비가 정말 비싸다.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지만 참가비가 적어도 수 만불 되는 외국의 저명 아트페어는 명분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역시 돈이 있는 화상들이 노는 장터는 다르다. 자본의 위력은 그래서 참 치사하기도 하다.

그런데 더러 자본이 넉넉한 작가들이 있다. 그들은 통 크게 화상을 사기도 한다. 말하자면 부스비를 작가 자신이 전부 지불하는 것이다. 거꾸로 화상이 팔려가는 꼴이지만 화상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화상은 장사하는 사람이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은



어디나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거기서 예술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래도 더러 작가들은(본인이 작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것을 명예로 삼으려 한다. 마치 초대받은 손님인 척 한다.

가끔 대학생들마저도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것을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다수의 젊은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사실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그럼 밥은 누가 먹여주나?"하고 질문하면 할 말은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아트페어는 절대로 고상한 장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고상한 시장은 없다고 믿는다. 아무리 명품을 파는 곳이라도 시장은 고객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림을 팔겠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을 그리겠다고 하는 작가는 틀림없이 멍텅구리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시장의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시장에도 역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말 명품은 고객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실 고객이 명품을 의식한다. 정말 좋은 것은 시장에 나가지 않는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번에는 어떤 명품이 나타날까를 고대하는 고객을 의식하는 작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품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口



휘목미술관기획 전북미술의 조망3

전북청년작가 초대전

◉

2014. 11. 15 토 ~ 2014. 28 금

Opening _ 2014. 11. 15 토 PM 15:00

휘목미술관

어느덧 따뜻한 가을의 기운이 물러가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떨어진 낙엽 밟으며 힐링이 필요한 주말,
지인들의 전시 소식을 접하고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한 휘목미술관에 다녀왔다.
친구, 선배 등 알고 지냈던 분들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 반갑고 설레는 순간이었다.
전북지역 26명의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그 현장을 살펴보았다.

글 **최윤진**(전북회화회 회원)







미술관 입구부터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는 주변 자연경관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이다. 부안에 위치해 있어서 군산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첫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돌아간 곳이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작업을 잠시 쉬면서 오랜만에 보게 되는 첫 전시였다. 작품을 쭉 보면서 또래 친구들, 친하게 지냈던 선배들 모두 학교 다니면서 작업도 일도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잠시 예전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창 학교에서 야간작업 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같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따르던 고통과 기쁨, 희열도 느꼈던 그 때를 떠오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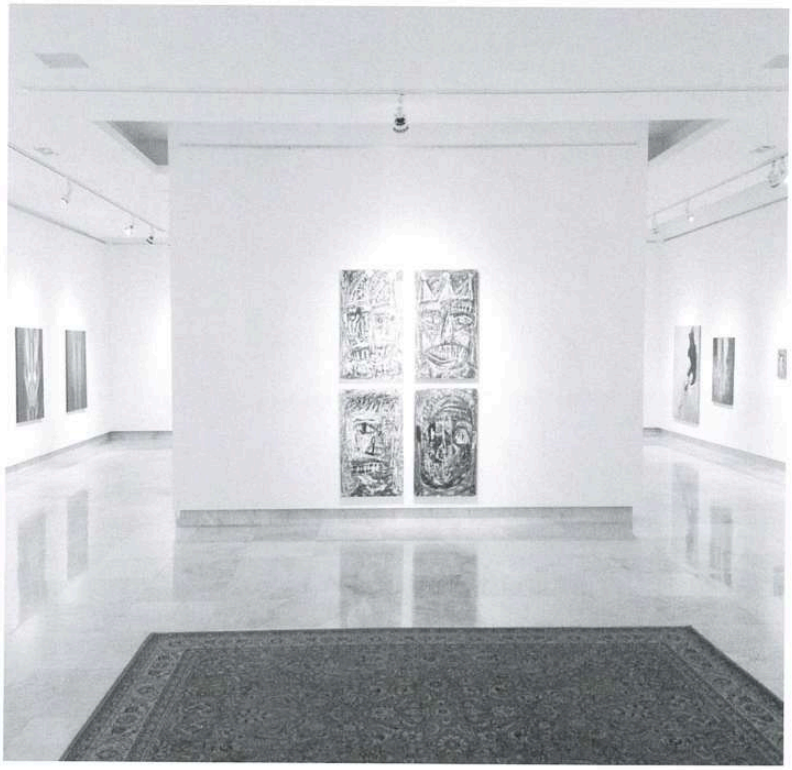
전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휘목미술관의 학예사 선생님을 만나뵈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휘목미술관은 지금 전북미술의 조망전 3회를 맞이하여 1탄 중견작가, 2탄 원로작가, 3탄 청년작가 초대전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기성작가들의 전시 말고도 40세 이하의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혈기왕성한 젊은 작가들과 함께 전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청년작가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26인의 작가와 작품 선택 의도가 궁금합니다.**

올해와 작년을 기준으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자료를 전부 모았습니다. 소규모로 3-4명씩 전시하신 분들, 신예작가초대전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 위주로 자료를 모아서 작품을 보았으며 미술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북지역의 작가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타지역을 떠나가는 후배들도 많았고 폐과되는 열악한 상황들이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손이라도 굳지 않게끔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초대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작가에게 하나의 약력과 타이틀이 생기는 것이 작가로서 큰 힘이 된 다는 것을 알기에 이와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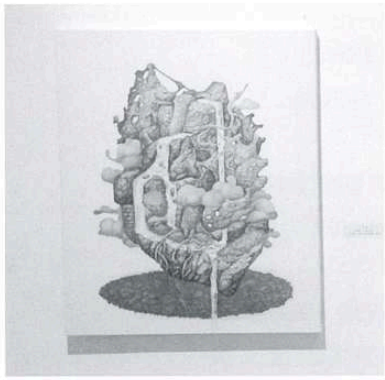
● **앞으로의 계획은?**

해마다 좋은 전시 기획을 위해 많은 노력중이며 지역작가 레지작가들의 지원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0월은 레지던지 작가들의 전시가 있습니다. 최종 평가전인 레진던시 작가전을 끝으로 올해는 기획전시가 끝납니다. 그 밖의 미공개 소장품전인 박수근, 권진규 등 작가들의 작품 전시도 있을 예정입니다.

(양광식 학예사 선생님과 인터뷰 中..)









눈으로 보고 즐기는 시간은 짧지만 작가들이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을 생각하니
작품을 보고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작업을 끝까지 놓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전라북도 모든 젊은 작가들의 그 패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앞으로 이들이 더 많은 전시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재미난 주제로
전시장을 찾아주는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들로부터
전북의 발전과 미래가 밝다는 것을 기대해 본다. 公

Sally, 그림에 대한 생각!

양성모 작품을 보고...

실로 흥미로운 그림들이다.
언뜻 봐도 뇌 안에 산수화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니...
그래서인지 그림에 점점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인물들의 형체도 흔히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해서 익숙해져 있는
유명인들이고, 그 안에 그려져 있는 풍경들도 살아오면서 항상 주변에
나와 함께 숨 쉬고 있는 자연들이다.
이 익숙한 두 가지의 것이 서로 조합하여 약간은 기묘하면서도
이렇듯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가장 흥미를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림들의 인물을 살펴보면 체 게바라, 마이클잭슨, 앤디워홀의 순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단순하게는 한국인이 아니며, 유명인사라는 것이다.

글 **이철규**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체 게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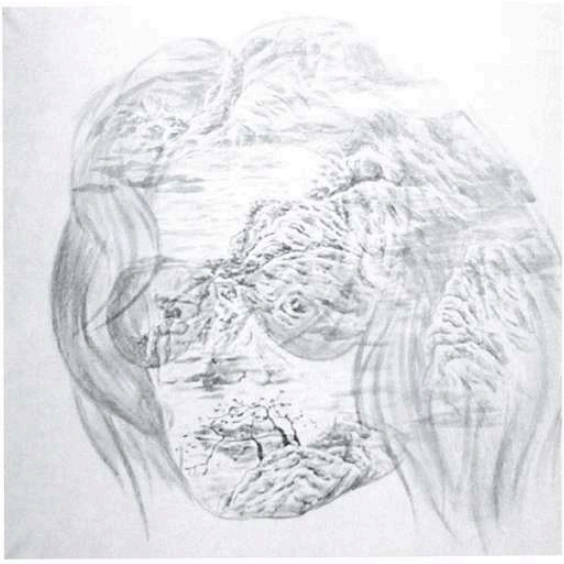
맨 처음 인물은 '체 게바라'이다 ▼

먼저, 체 게바라에 대해 살펴보면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 대학에 다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여행을 하던 중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과 고통을 체험하고, 이들을 돕기로 결심하여 쿠바 반정부 혁명군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가한다. 혁명이 성공하며 쿠바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지만 콩고, 볼리비아 등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쿠바를 떠난다. 즉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향해 열정에 미련 없이 권력을 버렸던 체게바라의 모습으로 인해 체 게바라가

생존해 있을 때보다 사후 지금까지도 유명한 인물이 되고 있는 중심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인 사르트르도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 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런 삶을 산 체 게바라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림을 보면 헤어라인 주변 그리고 얼굴을 관통해서 힘이 느껴지고 단호한 위엄이 있는 산들이 뒤덮고 있다.

두 번째 인물은 '마이클잭슨'이다 ▼



마이클잭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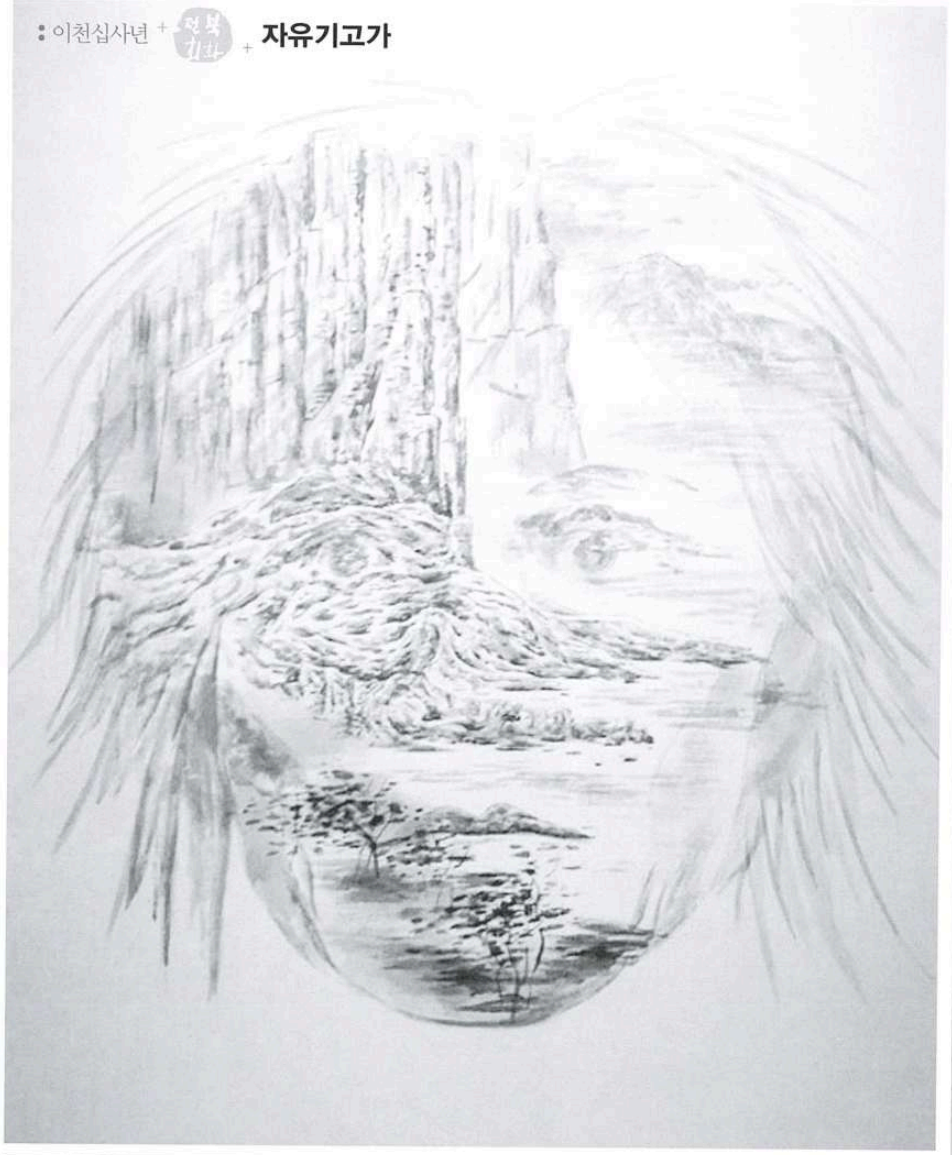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며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마이클잭슨은 '팝의 황제(King of Pop)'로 불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팝스타이다. 마이클잭슨은 그 자체로도 큰 문화적 현상이었다.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죽음, 아동성추행사건, 피터팬 콤플렉스, 성형 중독등의 가십거리로 대중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슬플 뿐일 정도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은 모든 장르를 그리고 인종을 아우르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이다.

사실 마이클 잭슨의 1982년의 팝 음악 역사상 최고의 앨범인 'thriller'는 세상을 뒤흔들게 되었는데, 이 앨범은 37주간 앨범 차트의 1위를 지켜 빌보드 차트가 생긴 이후 최고의 기록이었다.

이 앨범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다. 'thriller'는 춤과 음악뿐 아니라 당시의 유행과 문화적 현상들을 이끌어내서 국가와 인종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마이클잭슨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이클잭슨이 20세기 대중 음악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그런 마이클 잭슨의 인물이어서 그런지 굵고 위용감있는 체 게바라의 산수화에 비해 산들이 크기가 작은편이며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앤디워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앤디워홀'이다 ▼

'앤디워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린린먼로'와 '코카콜라'가 바로 떠오른다.

'이미지의 대중화, 복제, 표현방법의 보편화'에 앞장서서 예술이 과거에 소수 특권계층의 산물이었던 것을 대중적으로 만드는 데 앞장 선 인물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인 그는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앤디워홀의 인물의 형상화를 보면 1-3시 방향은 비움의 미학이요. 3시 이후부터 12시의 방향에 낮은 산과 절벽들 그리고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3권의 책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1년 전에 구입했으나 읽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책들이다. 그래서 미루고 있었던 그 책들을 단숨에 읽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무의식과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살바도르 달리'의 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2권은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구스타프 칼 융의 이론들이 담긴 책들인 인간의 뇌의 무의식 영역을 다루고 있는 '그림자'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책이다. 아마 사람의 뇌 안에 그림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림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떠오르거나, 보고 싶은 영화가 떠오르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주말은 이 책들을 읽느라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위에서 그림들을 잠깐 나의 식대로 살펴보았다. 즉, 체 게바라의 얼굴에 담긴 힘있는 산수화도,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얼굴에 담긴 디테일한 산수화, 그리고 앤디워홀의 대중적이고 친근한 산수화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림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내가 떠올린 책들을 보며 정리된 감정을 적어보자면, 체 게바라도, 마이클 잭슨도, 그리고 앤디워홀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산수화의 그림들은 그 세 명의 본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작가가 3명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투사(projection)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다.

먼저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자연 풍경.
그러나 자연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자연이 희노애락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인간의 뇌가 하는 것일뿐!
다시 말해 자연은 항상 그 모습이었다.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경험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이다. 즉 체 게바라는 본인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지금까지도 걸쳐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혁명가의 영웅이라고 인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것이다.
즉 이 그림은 체 게바라가 바라본 자연의 이미지가 아니라, 작가가 바라본 체 게바라의 이미지와 역동적인 산수화를 겹쳐서 표현하고, 마이클 잭슨의 섬세한 산수화는 작가가 바라본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엔디워홀은 낮은 산들과 나무들은 아마 미술을 대중화, 그리고 상업화 시켜서 대중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안겨주는 데 있어서 현재 흔히 인지되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재구성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더 깊고 무의식의 영역을 더 깊게 관찰할수록 좀 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창조적인 작품들이 탄생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일단 기존의 무수히 봐왔던 기법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흔한 그림들이 아닌 새로운 것을 향해 창조의 발걸음을 뗀 것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들이었다. 조금 더 아쉬운 면은 인물들의 기존의 대중적인 이미지, 즉 현재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런 흔한 이미지가 아닌 좀 더 무의식적인 면을 발전시켜 더욱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든다. (2014. 11. Sally Kim, 자유기고가) 人

경기창작센터에서의 하루...

경기창작센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몇 안되는 레지던시로서 그 규모와 환경, 인력 면에서 자랑 할 만한 국제 레지던시이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 산하에 있는 경기창작센터는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2년과 1년 단위의 장기입주자와 해외작가에게 해당되는 3개월 단위의 입주자를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현재 경기창착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본인은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숙식이 가능한 작업실과 별도의 작업을 위한 공동 작업실을 제공받고 생활하고 있다. 매서운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이곳에서의 생활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박성수**(전북회화회 회원)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는 섬이었다가 시화방조제가 생기면서 육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해졌다. 역사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선감학원이 있었으며 그 터에 다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건립되었던 것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경기창작센터가 되었다. 2009년에 문을 연 이후 부지면적 54,545㎡에 달하는 곳에 총 7개동의 건물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비롯해 공방, 전시실, 교육공간등을 갖추고 있다.

레지던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작가와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입주기간 동안 보다 활발한 창작과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멘토링, 강연, 오픈스튜디오등 다양한 창작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 예술가 선발은 매년 공개모집, 초청, 기관협력, 교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순수한 창작 활동만을 염두한 작가들은 목공실, 판화실, 미디어실과 같은 전문시설이 갖춰져 보다 폭넓은 작품구상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경기창작센터는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경기도의 학생, 공무원과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을 기획하기도 한다.


CRE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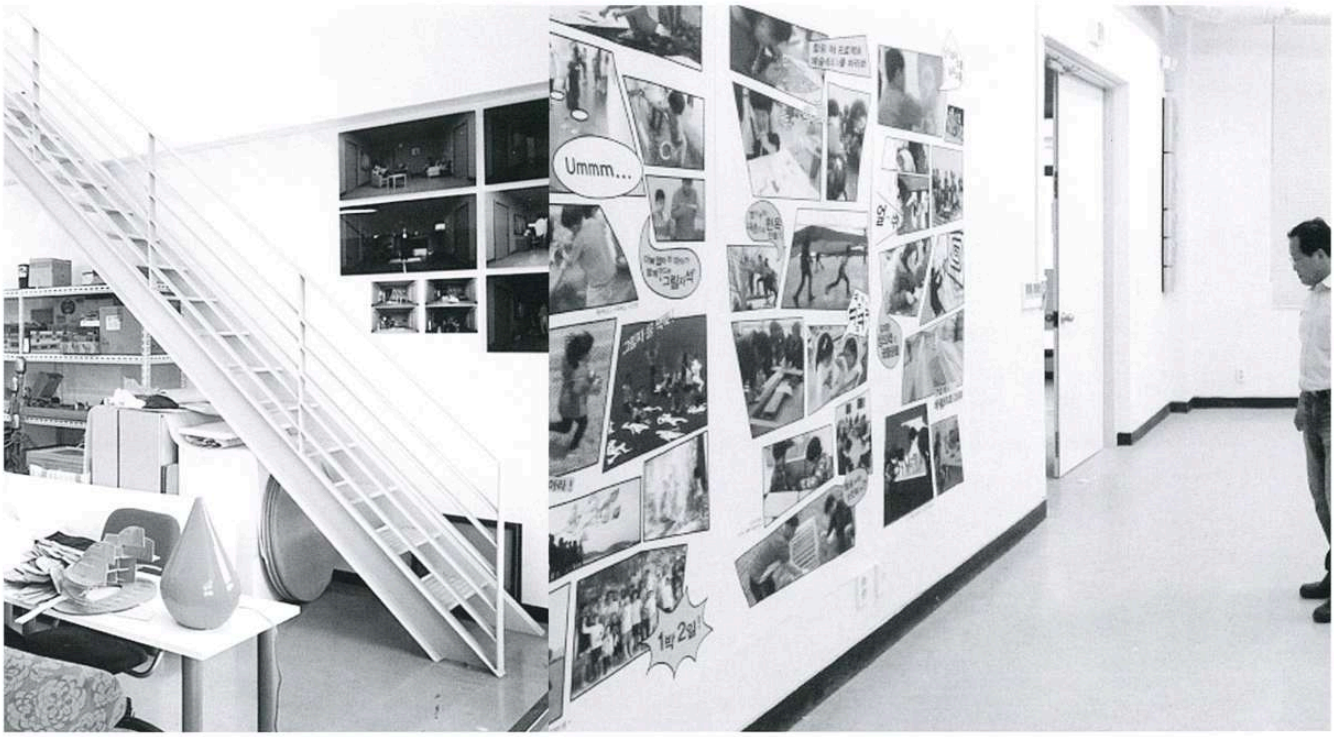
한여름에 이 지역 갯벌에서 잡아온
바지락이 들어간 칼국수와 해풍을 맞은
진한 포도를 먹었던 기억들.
배를 타고 들어간
조그만 섬에서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파도 소리와 보냈던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추억으로 어떤 작품으로
다가올지 기대하며
잊지못할 경기창작센터에서의 하루~~

예술가가 일일 강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예술 교육을 할 수 있어 때때로 주말에는 교육을 받기위해 온 부근의 학생과 일반인들로 성황을 이루기도 한다.

본인이 처음 입주한 뒤로 가장 생소한 기억은 이른 아침의 기상이었다. 잠을 자고 작업을하는 스튜디오가 해변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정남향을 보고 있어 아침이면 어김없이 햇빛이 창넘어로 들어오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알람이 없이도 잠이 깨곤 했다. 지금이야 커텐을 달아 괜찮지만 아침 잠이 많은 나에게는 곤욕스러울 정도였다.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깬 뒤로는 가끔 센터에서 멀지않은 곳으로 해변길을 따라 산책도 가게 되었다. 그렇게 산책을 갈 때 동료 작가와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은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훈선생님을 뵙기도 하였다. 김훈선생님은 경기창작센터에 초청작가로서 2011년 입주하셔서 5개월만에 '흑산'을 발표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작업을 시작한지 석 달이 지난 7월에는 개인전을 갖게 되었다. 이번 개인전 주제는 '소년'이었는데 그 이유는 센터가 있는 이 지역과 관계가 있다. 경기창작센터가 위치한 자리가 예전 선감학원이 있던 자리로 일제 강점기 청소년 감화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길거리에서 부랑 하는8~18세 소년 5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었던 곳이였기 때문이다. 작업을 위해 조사한 바로는 많은 소년들은 구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들어 죽거나 굶주림에 지쳐 영양실조로 죽고, 섬을 탈출했다가 갯벌에 갇혀 죽는등 수많은 소년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설은 해방이 된 이후로도1970년 말까지 존속되었다.

이렇듯 아픈 역사속에 소년들을 기리고 위무하고자 작업을 시작하였고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매체가 사용되었다. 그 동안 본인의 주된 재료였던 화선지 작업에서는 빛의 투영성을 적극 이용하고자 평면에서 입체로 설치되어 반투명 상태의 존재들이 연한 수묵으로 재현되었다. 입체로 설치되는 과정에는 소년들과 연관되는 상징적인 구조물로서 놀이터의 미끄럼틀을 목재로 만들고 곳곳에 화선지작업을 결부 시켰다. 이 밖에도 텍스트 작업과 영상과 같은 실험적인 작업들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역사적인 면을 끌어들여 센터내의 목공실과 미디어실과 같은 부대시설을 적극 활용한 비교적 큰 규모의 전시로 본인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일년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렸다. 오픈스튜디오는 입주작가 전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창작센터에서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을 외부 미술관계자와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이다. 이 시기동안 말그대로 작가의 스튜디오를 개방하여 누구나 편하게 개인작품을 구경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로 전시와 이벤트, 공연들이 3일동안 열리게 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오십개의 방 오만가지 이야기"라는 주제아래 현재 입주해있는 오십명의 입주작가 작품과 경기창작센터가 자리한 대부도의 지역적 특징이 짙은 지역연계 협업작업을 새롭게 공개되었으며 개별전시 17건, 그룹전시 4건, 축하이벤트 및 상주단체 공연이 8회가 이루어져 조용했던 대부도가 축제분위기속에서 밤낮을 보내게 되었다. 이시기에는 매일 서울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작가, 큐레이터, 미술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이 글을 쓰고있는 요즘 어느덧 날씨가 추워져 바닷가의 찬 바람이 스치는 계절이 되었다. 한여름에 이 지역 갯벌에서 잡아온 바지락이 들어간 칼국수와 해풍을 맞은 진한 포도를 먹었던 기억들. 배를 타고 들어간 조그만 섬에서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파도 소리와 보냈던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추억으로 어떤 작품으로 다가올지 기대하며 잊지못할 경기창작센터에서의 하루를 이만 줄인다. 끝





20여 년전만 해도 옥구군이었던 군산을 찾아서...

삼월 어느 토요일 오후
연구회 회원 20여명은
군산으로 갔다.
20여 년 전만 해도 옥구군이었던 곳이다.
봄인 것 같은데 아직 차가운 기가
남아 있는 날씨이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꽃샘바람 심한 편이다.

글·사진 **이승훈**(회원, 군산대성중학교)

장항에서 바라본
안개 낀 하구둑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발산초등학교 교정 뒤쪽에 도착했다. 석탑과 석등이 나타났다. 학교에 무슨 탑이랴. 절간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 곳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석등은 원래 전북 완주군 고산면 봉림사지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이 자리는 일본인 시마타니 야소야 라는 농장주가 강탈한 자리로 도곡농장 정원이 있던 곳이다.

먼저 이 석등에 대하여 알아보면 불을 켜두는 화사석(火舍石)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이를 받쳐주는 3단의 받침돌을 두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받침의 가운데 기둥은 둥글고 표면에 구름 속을 유영하는 용의 모습을 새겼는데,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화사석은 4각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8각을 이루게 하였으며, 각 면에는 4개의



창과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번갈아 두었다. 사천왕은 불교의 법을 지키는 신으로, 화사석에 새겨 놓아 등불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붕돌은 8각으로 각 모서리선이 뚜렷하며, 곡선을 그리는 처마는 여덟 귀퉁이에서 치켜 올림이 시원하다. 꼭대기에는 연꽃무늬가 조각된 머리장식 받침대를 마련해 놓았으나, 머리장식은 남아있지 않다. 연꽃 조각 수법이 매우 잘 만들어 있어 감탄을 나게 한다.

이 번 답사에서 찾은 것이 하나 있다. 돌의 재질 등으로 보아 각각 다른 부재가 하나의 석등을 이루고 있는데 원형이 아님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부재 하나 하나가 다 훌륭한 가치가 있어 보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 석등은 보물 234호이다.

이곳에 3층 콘크리트 건물인 시마타니 금고가 있다. 석등에서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안에 그동안 수집한 그림, 도자기 같은 골동품을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텅 빈 곳이다.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들이 우익인사를 가둬두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발산리 금고와 각종 석조물, 발산리 석등(보물 제234호), 발산리 5층 석탑(보물 제276호), 발산리 6각 부도(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 185호) 등이 그대로 남아서 아픈 과거사를 보여주고 있다.







1) 발산리 석등
2) 시마타니 금고
3) 충의사

다음은 발산 초등학교에서 승용차로 약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충의사라는 사당을 가게 되었다. 반월산 기슭에 있는 데 활을 쏘는 궁터가 산 너머에 있으며 유물전시관에는 영정과 삼인보검이 전시 되어 있다고 한다. 관리 하시는 분이 없는 것채원병 가옥 입구 같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 충의사는 조선 선조 때 무신 최호 장군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영웅 최호장군이었다. 조선 중종 27년 경주최씨 최치원의 15대손 최한정의 4남중 막내로 태어나 자란 곳이 지금 이곳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이다. 최호장군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북방 요충지를 따라다니며 병법을 익혔다고 한다.

장군은 선조 29년(1596년)에 일어난 이몽학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청난공신 2등에 올랐으며 정유재란(1597년) 당시 칠천량 해전에서 왜구를 무찌르다가 전사하였다. 칠천량 해전은 원균이 이순신 대신 나아가 사우다가 패전한 곳이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투옥 되었을 때 9살이 많은 최호장군은 62세의 나이로 칠전량 해전에서 전사 하였다. 구 사당은 후손이 영조 5년에 세웠다. 최호의 아버지 최한정과 최호 아들과 손자인 최몽란, 최효설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부근에 묘가 있다. 묘 앞의 비석은 오석(청석)으로 벼루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돌이다. 쇠끝으로 그으면 파지는 돌이다. 이 비석 옆쪽은 글자 등을 지운 흔적이 있었다.

다음은 채원병 가옥으로 갔다. 5분 거리에 있었다. 채원병 가옥은 만석지기였던 선조의 기와집이다. 현재 'H' 건설에서 퇴직하시고 살고 있는 이분이 채원병이다.

회장은 여기를 몇 번 왔었는데 한 번도 주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만나게 되어 반갑기 이를 데 없다고 통성명도 하고 명함도 교환하는 것 같았다. 이곳에 주인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보존이 잘 될 것 같아서이다.

고봉산 자락에 있으며 임피와 성산으로 이어지는 도로 가까이에 있다. 발산리 석등 쪽에서 와도 길을 아시는 분은 5분 거리 밖에 안도는 거리이다. 그러나 그 쪽에서 오면 꽤 길이 구불 하여 찾기가 힘들다.

고봉산은 지네 형상을 이루는 곳으로 터를 잡아 건물이 들어섰는데 99칸 집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 사당만 남아 있다. 부엌,

대청, 큰방, 건너 방으로 구성된 안채의 건립은 철종11년(1860년)이며, 사당은 대한제국 광무 5년(1901)에 지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가 너무 가까워 경계를 짓기 위하여 연산홍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지금은 연산홍과 사철나무만 남아 있다. 사랑채 밖으로는 수석과 소나무로 조경하여 운치가 있다. 주택의 소목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 상류층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북 민속자료 24호로 지정은 되었지만 보수하면서 날림으로 하여 원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집은 북향을 하고 있는데 북향집은 기단 위에 기단을 올려 한옥을 짓는다고 한다.

객사는 남향이었다고 한다. 객사를 먼저 짓고 안채를 지었으며 안채 기둥은 둥근 기둥을 썼다. 원래 왕의 연고 없이 기둥을 둥근 것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조 때 채씨 문중 따님이 어떤 연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단다.

지금 안채가 'ㄷ'자로 된 곳 중 서쪽에 솟을 대문자리라고 한다. 서쪽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곳이 대문 자리라고 한다. 방문 기념사진을 촬영한 곳이다. 남쪽에 장독대와 우물터가 있다.

조부가 막강한 부를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부인도 7분이었고 본부인이 혼례준비를 하여 주었다고 한다. 별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거주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한량으로 살았으며 전쟁과 혼란이 있을 때 등은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다고 한다. 그러니 집안을 보존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혼례 때는 사모관대 중 사모에서 날개 빗 하나를 빼고 한쪽에 날개만 있는 사모를 쓰고 혼례를 치루는 것이었으며 조부님이 돌아가실 때는 7일장을 하였다고 한다.

이 집에는 약방과 방앗간이 있어서 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잣집은 보약 등을 항시 구비하였으니 옛날 말에 기침하면 '채오덕 한 테가 봐라'는 말이 성산 쪽에서 있는 말이라고 한다. 이점은 부잣집에는 약이 늘 있었다는 것이리라. 아무튼 작은 기와집이 소나무 와 대나무가 잘 우거져 작은 기쁨을 주기에 좋다. 마침 대문 밖으로 동백이 피고 있었다.







4) 채원병 가옥 입구
5) 채원병 가옥 안뜰
6) 고우당
7) 히로쓰 일본식 가옥
8) 근대 역사 박물관











9) 채만식 문학관
10) 동국사 전경
11) 동국사 전시품

서해와 금강, 채만식 소설 탁류, 일제 수탈 현장이 남은 도시로써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의 관광거리로 인식 되었다. 그 가운데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금강 하구에 있다. 째보선창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지금은 개항 100주년 기념물이 있는 진포해양공원이다. 주변에는 옛군산세관 건물과 일본식 제18은행, 옛조선은행, 부잔교 등이 있다. 박물관 주변은 옛날 농기구들이 놓여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가 왼쪽으로 서있고 오른쪽은 안내 데스크가 있다.

1층은 해양 물류 역사관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 전시실이 있다. 옥구농민항일항쟁은 일본의 대규모 농장이었던 이엽사 농장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곡식을 일본 사람들이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가 이에 항거한 운동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도 항일항쟁을 펼친 한국사람 3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옥구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다. 도한 한족은 부잔교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다리이다. 간만의 차이가 커서 배를 정박하고 쌀을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다리이다. 3층에는 근대 생활관이 있는데, 옛날 군산의 모습을 세트로 구성하였다.

월명산에 올라갔다. 채만식 소설가 문학비가 세워져있다. 멀리 배들이 떠나가고 장항이 아스라이 보였다.

동국사로 향했다. 동국사 가는 길목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시들이 걸려있었다. 문화예술을 작가와 시민을 이어주는 곳이 있다. 여인숙이다. 이름이 잠자는 곳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작가들이 완래하면서 토론과 전시들이 있는 곳이다. 이곳을 지나서 가면 동국사가 나온다. 동국사는 일제 때 세워진 절로 국내 유일한 일본 식 절이다. 동국사 사찰 안내에 따르면, '본래 이름은 금강선사이다. 금강선사는 1909년 일본인 승려 내전불관이 군산에 포교소를 개설하면서 창건한 조동종 절이다. 대한제국(1897-1910)과 일제 식민지시대(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라고 했다. 이 절 안에서는 일본군이 조선인을 폭행 하던 총, 칼, 무기 등과 신사 사진, 위안부와 관련한 자료와 참혹상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 되어 있다. 이 절의 복장 유물은 373점이 된다. 보물로 지정 되었으며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히로쓰 가옥에 들렸다. 고우당 게스트하우스에 나와 이성당 쪽으로 향했다. 이성당 빵 집이 유명한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줄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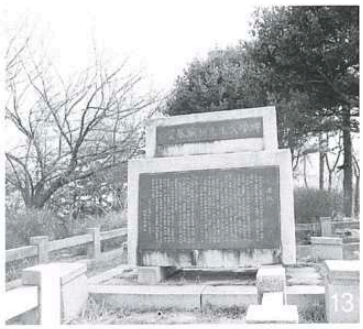
다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했다. 백릉 채만식은 1937년에 조선일보에 소설 탁류를 연재하여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서천으로 가는 길목에 금강하구둑이 있다. 이 금강 남쪽에 문학관이 있다. 조용하다 못해 쓸쓸하다. 아담한 배 모양으로 들어서 있다. 그의 웃는 모습이 소설마냥 해학적이다.

장편 소설로 사회의 어두운 세태를 그렸다. 중간에 백제의 흥망을 더듬는다고 한 것은 나라가 망한 사정을 되새기게 한다. 긍정적 인물들의 수난을 그리는 이 소설에서 당대의 어두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친일과 반일의 기로에 서있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탁류는 한 많은 역동의 시대에 중심에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알아야할 작품이다. 그의 부친은 상당한 부농이었으나 1905년을 전후해 일제의 조선토지수탈 계략에 의해 경제적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그의 집 가까이에 이엽사 농장이라는 대일본지주가 살았다. 이엽사 농장은 전주. 익산. 옥구에 논 1,000정보, 밭 200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농민 1,700명을 거느린 대 농장이었고 본거지가 군산시 서수였다. 탁류를 쓴 채만식의 고향집은 서수와 임피의 경계 지역으로 한 마을이나 같았다. 이엽사 농장 주인은 니이가다현 사람들이었고 주임은 사이토오 이었는데, 일본이 밝힌 전국 평균 소작료가 46.7~42.4%였는데 75%의 소작료를 요구하는 악질 농장이었다. 동아일보를 보면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전반까지 전북에서는 16여건의 소작쟁의가 있었고 군산에서는 이엽사 소작쟁의 이외에도 2건 이상의 큰 소작쟁의가 있었다고 한다.

서수에서 농민들을 옥구농민조합 아래 서수농민조합을 1927년 8월 4일 만들었다. 이어 8월 5일 서수청년회가 만들어지고 두 단체는 8월 19일 '농민문제'강연회를 하다가 경찰이 가로막자 '서수농민조합 만세', '서수청년회 만세', '세계 무산자 만세'를 외쳤다니 서수 이엽사 소작쟁의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소설 탁류는 탄생했다. 이 작품에서 정주사, 고태수, 박제호, 장형보는 모두 속물화하고 타락한 1930년대 한국사회의 인간상들이다. 이들은 초봉을 이용하고 탐하며 짓밟는다. 그리고 효용가치가 없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녀를 버린다. 채만식은 소설에서 이 속물들을 그만의 장기인 풍자로써 꼬집는다. 순결한 여인 초봉을 농락하는 이 사회가 채만식이 말하고자하는 탁류이다.

그리고 임피역으로 왔다. 임피역은 지금은 모든 기차가 스쳐가는 곳으로 간이역도 아니다. 조금은 꾸며 놓아서 쉬었다가 갈 곳은 된다. 동상 군들을 제법 만들어 놓기도 했다. 살 수탈을 위하 만들어진 역이 지금은 역사의 뒤안으로 들어서있다. 囚


12


13


14



12) 백릉 문학관
13) 백릉 채만식 문학비
14) 임피역과 어린이
15) 임피역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칭따오 여행을 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손자, 손녀와 함께한 외국어행. 20여년 만에 한 딸과의 외국여행. 오래오래 기억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딸과 함께한 여행

칭 따 오 여 행 기

글 **이진숙**(전북회화회 회원)

"엄마! 칭따오 여행 어때요?"

"그래! 좋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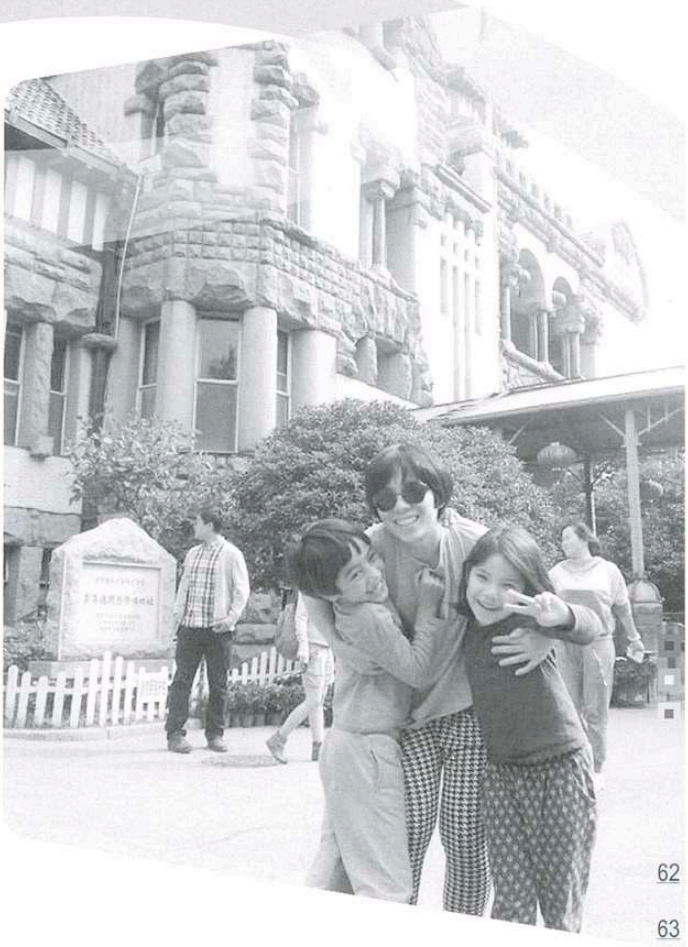
이렇게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칭따오 여행을 가게 되었다.

항상 마음속으로 친정어머니 살아 계실 때 둘이서 조금 먼 곳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서운하며 속상 했었는데……

딸과 둘이서 여행 한번 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딸과의 여행을 준비했다. 그런데 곁에 붙어 따라가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 다름 아닌 손자와 손녀 그리고 내 남편 이렇게 판이 커져버린 것이다.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손자, 손녀를 대동하고 여행을 한다니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기분이 좋았다.

마트에 가서 아이들 먹을 간식거리를 이것저것 챙겼다. 그 녀석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곁에서 카트를 끌고 따라다니던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 안주꺼리를 자꾸 카트 속에 집어넣는다. 내가 눈을 흘깃거리는 것도 모르고,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행 가방을 꼼꼼히 챙겨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언뜻 남산 팔각정이 떠오르기도 하는 누각

드디어 출발하는 날 이른 시간 새벽잠에 취해있는 아이들을 자동차에 구겨놓듯이 싣고 공항으로 갔다. 공항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사람을 들뜨게 한다. 아이들도 어느새 잠에서 깨어 신나게 뛰어다닌다.

비행기로 불과 1시간15분만에 다른 나라 땅에 온 것이다.

청도도 여느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청나라의 군사기지로 작고 한산했던 마을이 독일의 침입을 받아 99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았단다. 그러다가 다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에게 유린당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삼면이 바다이기에 무역도시로 발달했고 중국에서도 공기가 좋은 곳에 속하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단다.



전갈꼬치

독일이 점령한 뒤로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그곳에 있는 노산이란 곳의 맛있고 깨끗한 물을 이용해 만들어 먹기 시작한 맥주가 오늘날의 '칭따오맥주'라는 세계적인 맥주 생산지가 되었다. 식민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맥주 생산지가 되어 그나마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맥주를 만드는 맛있고 깨끗한 물이 있다는 노산북구수 관광을 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동해의 노산만 못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명산으로 꼽힌단다. 노산에서도 가장 유명한 북구수 풍경은 가는 곳곳마다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있어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3시간여의 산행이었지만 다행히 같이 간 손자 가온이와 손녀 루미도 즐겁게 걸었다.

특히 셋째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던 둘째 루미가 여행 내내 엄마를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점심에는 양고기와 쇠고기를 곁들인 샤브샤브를 먹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혼자서도 샤브샤브에 이것저것 넣어서 잘 먹는 모습이 정말 흐뭇했었다.

오후에는 청도시 박물관을 관람했다. 나는 여행 중 박물관 관람코스가 있는 것이 참 좋았다. 시박물관인데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역시 중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 아이들을 재우고 청도맥주박물관에서 사온 그 유명한 칭따오맥주를 딸과 우리내외가 맛있게 마시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팔대관'이란 곳을 구경했다. '만국 건축 박람회장'이란 별칭으로 불린단다. 독일 점령시절에 각국의 부호들이 살았던 별장이 있는 곳으로 바로 앞에는 멋있는 해변이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모습을 짐작 할 수가 있었다.

잠깐 짬을 내어 들른 먹자골목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중국인들은 책상 다리를 빼곤 무엇이든 먹는다는 우스갯 소리가 정말인 듯 이곳 '지머루시장'은 없는 것이 없었다.

특히 살아있는 전갈을 꼬치에 꿰어 튀겨먹는 요리는 참으로 끔찍했다.

마지막으로 들른 '소어산'은 왜 청도가 중국 속의 유럽인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있는 곳이었다.

1983년 중국 최초로 산 정상에 공원을 지어 화제가 되었던 곳으로 해발 60m에 위치해있다. 중국인들이 청도를 한마디로 '홍와 녹수 남천 벽해'라고 하는데 붉은 지붕, 녹색 숲. 쪽빛하늘. 푸른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 짧은 청도 여행이 끝났다.

늦은 밤에 공항에 도착했다. 셔틀버스를 타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오는 도중 두 녀석은 세상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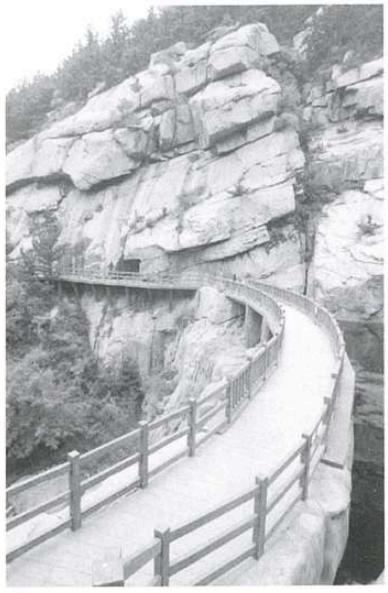
처음으로 손자, 손녀와 함께한 외국여행, 20여년 만에 한 딸과의 외국여행, 오래오래 기억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끄



띵따오 맥주 공장



노산 북구수 기암괴석과 맑은 물



노산 북구수 기암괴석과 다리

읽을 만한 책

파리 미술관 산책



파리 미술관 산책

〈최상운 저 / 북웨이〉

이 책은 시간을 삼킨 예술의 궁전 루브르 미술관부터 신비와 환상으로 가득한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인상파 회화의 성지 오르세 미술관, 인상파의 별관 오랑주리 미술관, 거장과 버려진 여인의 집 로댕 미술관, 20세기의 풍경 퐁피두 미술관, 현대 사진의 풍경 유럽사진 미술관, 태양왕과 키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베르사유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파리의 미술관 8곳을 중심으로 명작에 대한 소개와 주변 볼거리를 소개하는 파리 예술 기행 책이라 할 수 있다. 예술품들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명화'라 불리는 작품들은 그 안에 작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 전달하고자 한 의미와 당대의 시대적 배경, 철학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스티브 잡스가 반한 피카소

〈이현민 지음 / 새빛〉



미술, 창의와 상상을 이끌어 내다!

명화와 함께 떠나는 명작『스티브 잡스가 반한 피카소』. 이 책은 영화 '다빈치코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앤디워홀 현대미술, 예술품 가치와 보존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이지만 중요한 미술사적 조형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자는 미술은 이 시대가 원하는 창의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이에 감상이나 여가, 교양을 위한 미술을 넘어 미적 체험을 통한 소통이 창의와 상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화와 함께 미술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다시 그림이다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마틴 게이퍼드 지음 / 주은정 옮김 / 디자인하우스〉

『다시 그림이다』는 저명한 미술 평론가 마틴 게이퍼드가 10여 년에 걸쳐 데이비드 호크니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호크니는 그의 그림만큼이나 독창적인 시각으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한다.

전통적인 풍경화부터 아이폰 드로잉까지, 오페라 무대 디자인부터 9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작업까지. 왕성한 호기심과 실험정신으로 다양한 매체와 예술 영역을 넘나들고 있지만 호크니가 평생 몰두한 문제는 '사람과 그림'에 관한 것이었다.

예술가의 방

〈김지은 지음 / X서해문집 (구)서운관〉



『예술가의 방』은 MBC 아나운서 김지은이 현대미술작가 10인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미술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책이다. 쌀과 콩 등으로 초상화를 만들어 내는 이동재, 나전칠기와 청자 등으로 다양한 모습의 비너스를 만들어내는 데비 한, 동구리 작가로 유명한 권기수 등 현대미술작가들의 공간이 한 눈에 펼쳐진다.

아나운서 김지은은 한국 미술에 대한 애정과 만만치 않은 글쓰기 공력으로 미술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나눈 대화와 그곳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솔직하면서도 담백하게 담아냈다. 때문에 작가들의 시시콜콜한 신변잡기에서부터 심각한 예술계 비평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사진과 일러스트를 통해 작가들의 방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예술가의 탄생 예술가의 창조력을 일깨운 뮤즈 이야기

〈유경희 지음 / 아트북스 〉

예술가를 탄생시킨 뮤즈를 만나다!

미학자 유경희가 예술가들의 창조력을 일깨운 뮤즈를 만나게 해주는『예술가의 탄생』. 요코 오노, 구스타프 클림트, 조지아 오키프, 프리다 칼로, 잭슨 폴록, 폴 고갱, 앤디 워홀,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등 세계적 예술가 13명에게 창작의 욕망을 불태울 영감을 준 매혹적 뮤즈의 존재를 찾아나선다. 뮤즈를 통해 그들의 영감의 근원은 물론, 창조적 발상, 상상력의 원천을 밝혀내고 있다. 유년 시절은 물론, 그들과 긴밀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아울러 그들이 겪었을 험난하고 어지러운 삶 속에 숨겨진 치명적 고통, 아픔, 실연, 그리고 패배 의식 등을 끄집어내고 있다.



전북회화

2014년 통권 제21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이광원

편집위원 | 이광원, 박성수

전북회화 2014년 통권 21호

발행일 | 2014. 12. 10

대표 66

기획_제 67

편.집.후.기

함박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설경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현대의 허울 좋은 고독의 광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사람의 자연을 가지고 자기를 잃지 않은 인간의 향수를
지닌 자연의 언어와 표정을 상실하지 않은 회화 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삶의 목적이나 삶의 빛깔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며 쓸쓸한 현대를 소화해 내며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맛보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회화회 회원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속에서 풍성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계획

- 5월 회화회 세미나
- 하계 MT
- 10월 정기전
- 12월 총회

Magic Tree

매직트리 D I Y 가구공방

-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가구
- 소나무, 편백, 레드오크, 물푸레나무등 원목사용
- 환경마크 인증받은 천연도료 및 마감재 사용



T. 010.9452.7231【공방 회원모집 및 상담 환영】

신뱅이

신뱅이(新田)는 한옥마을에 새로 입군 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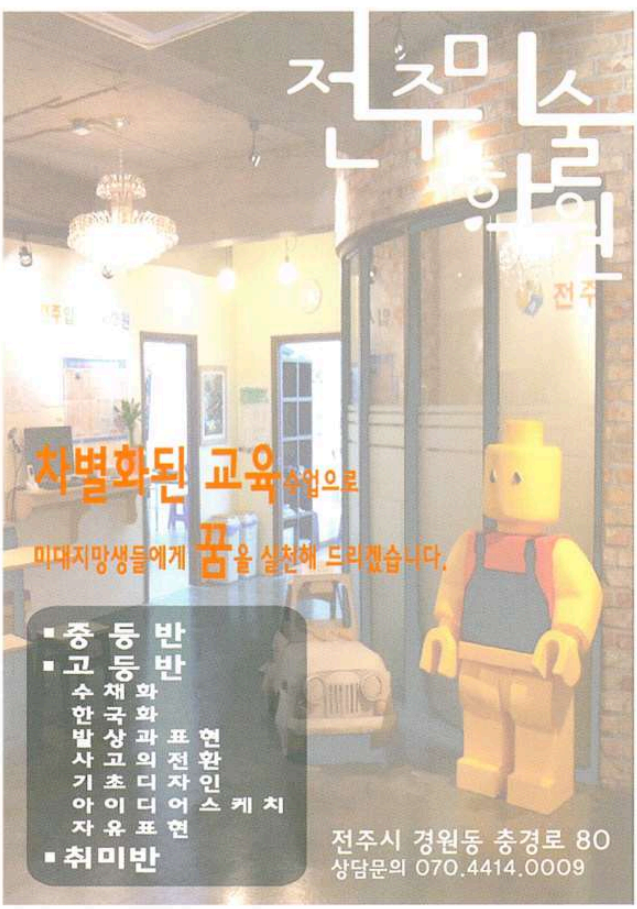
지난 갑술년(1934) 전주 교동 98-1번지에
소박한 행랑채와 우물이 있는 아담하고 작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 해엔 큰 비가 내려 경상도에서는 임청난 물난리가 있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인년
김치지기 안명자는 대목수 박칠성과 함께
깊이 숨어있던 대들보와 서까래,
닿여 있던 우물을 찾아내고 숨 쉬게 하였습니다.

낡은 것 같아도 닦아내면 윤기 나고 바라보면 멋스러운 이 집을
한옥마을의 새로운 벝으로 일구어 전주음식에 김치 향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전주의 맛과 향을 담아내고,
전주한지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문화가 피어나는 산뱅이.

무병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가족이 옛 마을 솟대처럼 신뱅이를 지켜주며,
아두일미를 뽐내는 입 큰 물고기가 여러분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www.greensum.com

그린섬 ★ 미술학원

- 서부캠퍼스 275-4284 (도청사거리 우리은행 7층)
- 경원캠퍼스 288-4466 (관통로사거리 풍년제과 3,4층)
- 애니섬만화전문학원 282-4607 (오거리 뱅뱅건물 5층)

안전 귀가차량 전주시 전 지역 운행 〈서부캠퍼스 등원차량도 운행〉

디자인 | 만화·애니 | 서양화 | 한국화 | 소묘 | 드로잉
서울대, 한예종, 홍익대반 | 이대, 고대반 | 건국대, 국민대반 | 일반대반 | 예고, 전통고, 애니고반 | 예중반

2015~2004
"서울대 11명 전북최다 합격"

그린섬 경원캠퍼스



관통로 사거리 풍년제과 건물 3,4층

그린섬 서부캠퍼스



도청사거리 우리은행 건물 7층

확장이전 OPEN!
애니섬 만화전문학원



팔달로 외환은행 옆 뱅뱅 건물 5층

2014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